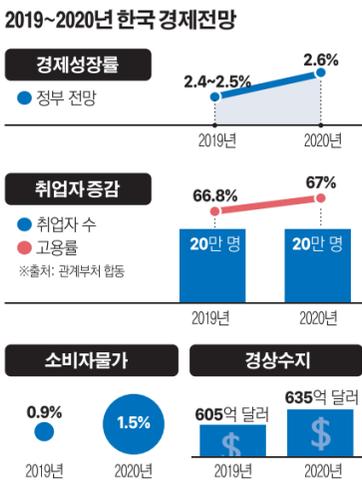


성장률 낮춘 정부 '감세카드' 꺼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2배 ↑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마련
'10조 + α 사업' 조기 추진
홍남기 "기업투자 적극 유도"



정부가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이후로 계획된 투자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앞당겨 달라는 취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2.6~2.7%)보다 0.2%포인트(P) 낮은 2.4~2.5%로 조정했다. 전반적 경기가 위축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3일 합동으로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현행 1%(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에서 각각 2%·5%·10%로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및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가속상장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관련기사 2·3·5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 기업들이 하루빨리 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은 물론, 국내 투자도 위축된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올해 1~5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7.4% 감소했으며, 건설·설비투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같은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2%P 낮

춰 잡았다. 설비·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각각 4%, 2.8% 줄고 수출(통관)도 5%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개선돼 우리나라 성장률도 2.6%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성장 모멘텀이 개선되고 성장세가 회복되는 타이밍이 올 것"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경제의 업턴(upturn) 기회가 도래할 때 우리 경제가 빠르고 힘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 모멘텀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조 + α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회의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경제 활력 제고 및 포용성 강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조현정 기자 jh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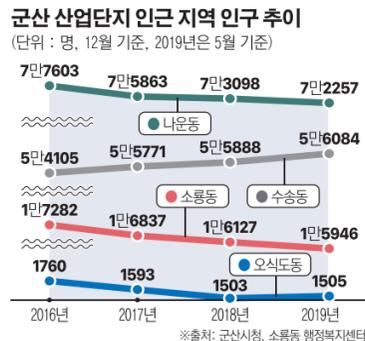


거리로 나온 학교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공공임금제 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전국 급식 대상 학교 중 44.1%인 4601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기계 소음 몇자...사람 소리도 끊겼다

혹독한 '군산의夏'
③ 청년들 떠난 '적막한 도시'
노동자 모여 살던 산단 인근 공장 폐쇄 뒤 6500여명 떠나
원룸촌도 80% 비어 '슬럼화'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유일한 학교로 2013년 설립된 새만금초등학교 전교생은 56명이다. 2016년 80여 명에 달하던 학생 수가 3년 새 눈에 띄게 줄었다. 학급 평균 학생 수는 8명. 바로 옆에는 짓다 만 중·고등학교 부지가 분위기를 더욱 쓸쓸하게 한다.

3일 군산시청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주로 모여 살던 군산시 오식도동 인구는 2016년 말 1760명에서 올해 5월 기준 1505명으로 2년 반 새 14.8%(260명)가 줄었다. 학교가 위치한 오식도동은 한국지엠과 현대중공업이 철수한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새만금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사는 "지역 자영업자 자녀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가계가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도 함께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사 노동자들이 터를 잡았던 소룡동과 나운동은 같은 기간 각각 1300명(7.52%), 5000명(6.44%) 감소했다. 지역 대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세 마을에서 공장 폐쇄 뒤 6500명가량의 주민이 떠났다. 같은 기간 군산시 전체 인구가 5000명가량 줄어든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은 "체감상 절반 이상 떠났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구 의원실 관계자는 "집계상 군산으로 거주지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아 수치상 드러나지 않은 탓에 고용위기지역 연장에도 어려움을 겪

었다"며 "한국지엠-현대중공업 공장 폐쇄 후 군산 지역 실업률이 오른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18년째 군산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나점례(50) 씨는 "오식도동 먹자골목이 활기를 띠 때는 야간 손님도 많이 태웠다"며 "요새는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단 내 지점을 둔 은행 관계자는 "오식도동 식당은 반 이상 비어 있어 5~10분 거리인 비응도항 식당가에서 식사를 해결한다"며 "8시간 지나도 식당이 문을 닫기 때문에 야근할 때 배달시켜 먹을 곳도 없다"고 말했다. 산단 내 협력사 관계자는 "원룸촌도 80%는 비어 있어 원래 살던 사람들도 슬럼화하니까 시내로 나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 중단과 함께 연이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17만여 명은 다니던 직장을 잃었고 군산시 인구 유출은 심각해졌다. 정부는 2018년 4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뒤 지역 경기 침체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2020년까지 연장했다.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도 2020년 4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군산=김버리 기자 kimstar1215@
김보름 기자 fullmoon@

코오롱 '인보사' 결국 퇴출

식약처, 제조·판매 허가 취소
코오롱생명과학 법적 대응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가 결국 시장 퇴출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14·15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7월 9일자로 최종 취소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지 36일 만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행정처분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청문회를 열어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허가 취소를 철회할 만한 근거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간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청문회를 연 지 약 2주 만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지었다. 허가 취소 결정 배경에 대해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 허가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면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 제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법정 다툼으로 식약처의 처분에 맞선다. 코오롱은 식약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euna@

아시아나 매각 연기

애경 외 관심 기업 없어...입찰공고 미뤄질 듯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기업의 관심이 저조하자 입찰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나 매각 공고를 이달에 할 수 있을지, 7월을 고집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입찰을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말에는 입찰 공고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8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애경 외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국은 인수 후보로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한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산은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를 탕감해 원매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인수자가 투입할 자금이 줄기 때문에 지금보다 원매자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그는 "산은이 확실하게 아시아나항공의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

은 3조5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부채만 1조7000억 원이다.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이 '승자의 저주'를 우려해 인수를 꺼리는 이유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채무를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산은이 자금을 투입해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면 매각 연기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분리 매각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에어부산 등 '알짜 자회사'에 관심을 갖는 원매자가 있어서다. 이미 여러 기업에서 에어부산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기존의 방침대로 통매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식어가는 점을 의식해 강경했던 이전보다는 한 발 빠른 모양새다. 이주혜 기자 winjh@

성장률 전망 0.2%p 또 낮춰...“추경 지연 땀 추가 하락”

성장률

무역 의존도 커 하방위험 확대
수출·투자 부진, 소비 2.5%↑
재정 투입, 취업자 20만명 증가
연간 물가 상승률 0.9% 그칠것
0%대 저물가 고착화도 우려
“내년 경기 회복, 성장률 2.6%”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P) 낮췄다. 이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전제로 한 전망으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2.4~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투자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민간소비만 2.5% 늘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는 재정 일자리 확대에 힘입어 전년보다 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했다. 당시에는 건설투자(-2.0%)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1.0% 늘고, 수출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 회복 지연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수출이 곤두박질치자 전망치를 대폭 수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에 대부분 국가와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방향

10조 원 + α수준 투자 프로젝트 추진	제조업 업종별 전략 수립·4대 선도 산업 추가 발굴
- 행정 절차 간소화,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지원 (약 8조 원) - 공공기관 투자 1조 원 이상 추가확대 (53조 원→54조 원) - 6조 원 항만 민간투자사업 연내 추가 착공 (12.6조 원→13.2조 원) - SOC·낙찰차액 재투자 및 민간 선투자사업 추진(α)	- 제조업 비전 및 전략의 미래 산업구조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차·소재·부품·장비 등 업종별 혁신 대책 시리즈로 마련 - 신산업 분야의 4대 선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지능형 로봇 등 4대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집중 지원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및 확산 지원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시정 및 서비스 핵심규제 개선
-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원활한 사업화 위해 과제심사·자금·컨설팅 등 종합지원 -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지역의 산업·경제혁신 촉진	-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 제도에서의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 -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19.8월), 콘텐츠 분야별 (영화·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등) 발전방안 (19 하반기) 등 업종별 대책 지속 마련

다”며 “특히 대외 개방도가 높고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에 앞서 한국은행(2.6%→2.5%), 한국개발연구원(KDI, 2.6%→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2.4%)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물가도 심상찮다. 정부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내 총생산(GDP) 디플레이터 하락으로 이어진다. GDP 디플레이터는 당해연도 가격(경상)으로 계산한 명목 GDP를 기준연도 가격(불변)으로 계산한 실질 GDP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으로, 우리 경제의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거시경제 지표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GDP 디플레이터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며 “구조적으로 내려갈 것이냐를 보면 아직까지 (반도체 등) 특수한 상황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GDP 디플레이터 하락은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KDI는 5월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동향’에 부록으로 수록한 ‘최근 GDP 디플레이터 변동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정규철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경기 부진에 따라 실질성장률이 축소될 우려가 큰 가운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경우, 산술적으로 경상성장률도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 처리 시점도 변수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추경 효과는 7월 통과돼 집행되는 걸 전제로 한다”며 “늦어지면 이것(전망치)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률도 2.6%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가 2.8% 증가로 전환되고, 수출은 2.1% 늘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를 전망했다. 이 국장은 “내년 전망은 세계 경제가 큰 변수인데, 대부분 국제기구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봤다”며 “반도체 업황도 늦어도 내년엔 반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책금융 7.5兆 추가 공급, 수출 활력 제고

수출지원·일자리

정부가 하반기에 정책금융을 7조 5000억 원 추가 공급하는 등 잠재수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방)’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하반기 중 정책금융 규모를 7조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43조 5000억 원으로 늘린다. 추가 재원은 최근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는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물·식품, 전자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플라스틱 제품 등 신(新)수출성장동력 부문을 중점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자금난에 시달려 수출을 못 하는 기업들이 없도록 하반기에 정책금융 중 무역금융을 119조 원 공급하고, 3분기에만 70조 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신남방·신북방 등으로의 수출시장 확대 등을 위해 수출보험 한도도 확대한다. 애초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신규 무역보험 한도 2배 우대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보험한도 10% 일괄 증액 대상에 미국 등 주력 시장까지 넓힌다.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수출 활력 제고·일자리 대책

- 정책금융 7조 5000억 원 추가 공급
- 자금난 중소기업 무역금융 119조 원 공급
-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확대
- 청년 아이디어 사업화·창업 지원
-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저리 대출해주는 경우 세제 혜택

이차전지·바이오 헬스 등 중점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확대

자금난 중소기업에 119조 지원하고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확대

청년 아이디어 사업화 뒷받침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선별검사 때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소요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5조 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플랫폼’을 신설해 도시재생, 노후산단 재생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지방편

드(1000억 원 규모)를 하반기 중 조성하고, 수도권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세 분납 특례 기간을 확대(2년 거주 2년 분납→5년 거주 5년 분납)하기로 했다.

이번 하경방에는 청년과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 대책도 담겼다. 먼저 청년들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정착시키는 ‘신(新)직업 메이킹랩(Making Lab)’을 내년부터 신설한다. 청년이 가진 아이디어가 사업화 또는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의 창업 초기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창업 용자를 올해 1300억 원에서 내년에 1600억 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저리 대출해주는 경우 과세 대상이었던 이차 상당액 등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이런 혜택을 주면 청년들의 끼리는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년(60세 이상)이 지난 고령자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연내 착공

건설·부동산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 전세만기 6개월 전 보증가입 가능

정부가 ‘미리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를 착공하고, 46개는 준공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 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사업 대상지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가구·노후 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고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로 늘려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에만 총 3270억 원 규모의 148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착공하고 540억 원 규모 46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사업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사업도 빠르게 추진한다. 가장 속도가 느린

GTX-B(송도~서울역~마석)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GTX-B 노선은 2017년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지만 2년 가까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GTX-A 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은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 추진한다. 아울러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7호선의 청라연장 기본계획도 승인한다. 진접선·하남선·별내선 등 도시철도 노선 연장도 추진한다.

주택 수급 조절의 고삐를 더 죄는 차원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제도도 개선한다. 12월께 기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조건에 ‘공급 과잉’ 기준이 추가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 수의 10%를 넘으면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된다. 또 앞으로 전세계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못받은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짧아 지난 시점부터 이 상품에 가입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1년간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에도 전세금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덜 걷을테니 더 풀어라”... 기업에 1兆대 ‘감세 패키지’

기업 감세

하반기 투자 마중물 ‘인센티브 3종’ 생산성 향상시설 세액공제를 상향 수도권 ‘제2 코엑스’ 조기착공 지원 전문가들, 단발처방에 실효성 의문

정부가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조 원 상당의 ‘감세’ 카드를 꺼냈다. 내년 이후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들을 되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앞당겨 집행해 달라는 ‘호소’ 성격이 짙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 인센티브 3종’을 마련했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일로부터 1년간 현행 1%(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에서 2%·5%·10%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는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상 생산성 향상시설), 송유관·열수송관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위험물시설(이상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2년 연장한다.

내용연수(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공제율 개선: 법 개정안 통과일 이후 1년간)

기업 규모	현행	개선
대기업	1%	2%
중견기업	3%	5%
중소기업	7%	10%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 최대한 조속히 입법 추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 적용대상 확대

구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현행	생산자동화 공정개선 시설, 반도체제조 첨단시설 등	도시가스공급시설(LNG) 유해화학물질시설 등
개선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추가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 추가

■ 일몰연장 2019년말 → 2021년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 최대한 조속히 입법 추진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가속상각제도: 내용연수 50%까지 축소)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현행	혁신성장 투자자산(R&D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대해 가속상각(50%) 허용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50%) 허용
개선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한시 추가 (2019년 7월 3일~12월 31일)	가속상각 허용한도 50%→75%로 한시 확대 (2019년 7월 3일~12월 31일)

■ 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연장 2019년말 → 2020년 6월말

※ 가속상각제도: 고정자산에 감가상각 속도를 높여 초기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투자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

할 수 있는 연한)를 50%까지 축소하는 가속상각제도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에 대해선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을 추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가속상각은 시설의 감가상각을 앞당김으로써 회계상 비용을 높여 투자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장은 “경제가 어려워 기업들이 준비하는 투자조차 마무는 경향이 있다”며 “마무는 부분만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세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인센티브 3종에 따른 감세 효과는 1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으로 5300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생산성 향상시설

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로는 올해 신고실적(58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속상각은 순수한 과세이연으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에 따른 전체 세수 감소는 없다.

아울러 정부는 ‘10조 원+알파(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행정절차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4조6000억 원 규모의 화성 복합테마파크, 2조7000억 원 규모의 대산산업단지 내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 5000억 원 규모의 양재동 연구개발(R&D) 캠퍼스, 수도권 MICE(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전시) 시설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던 광역급행철도망(GTX) B노선(6조 원)에 대해선 연내 예타 완료를 추진한다.

공공기관도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중심으로 올해 투자액을 1조 원 이상 늘린다.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시설자금 등에는 대출·보증을 비롯한 정책금융 규모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투자세액공제라는 게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선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늘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경기를 이끌 정도로 투자를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대신 소비 쪽 대책들을 강화시키는 게 지금은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현행	개선	내수 활성화
승용차 구매	인하 세율 5% → 3.5% 6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연장	■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10% 환급
노후차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 휘발유·경유·LPG 신차 교체 시 개소세 70% 인하(12월 말까지)	15년 이상 노후 휘발유·경유·LPG차 → 휘발유·LPG 신차 교체 시에도 개소세 70% 인하	■ 면세 구매한도 상향조정 3000달러 → 5000달러
수소 전기차	개소세 최대 400만 원 감면 (12월 말까지)	2022년 말까지 연장	■ 만 25세 이하 청년 방학기간 SRT 무제한 이용 패스

노후 휘발유차 교체 개소세 70% ↓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로 상향

소비자 혜택

정부가 올 하반기 각종 세제·할인 혜택으로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비, 통신비 등 서민 생계비 부담도 덜기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8월부터 다자녀 가구, 대가족, 장애인 등 한전 복지 할인 대상 가구가 텔레비전, 냉장고, 공기정정기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제품 가격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비율은 10%로 상한선은 20만 원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시내·출국장 구매 한도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달 5%로 다시 인상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도 3.5%를 유지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5년 이상 노후 차를 휘발유나 LPG 신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개소세의 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올 연말 일몰을 앞둔 수소 전기차 개소세 감면 기한도 2022년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400만 원을 유지한다.

이번 하경방에는 서민 생계비 경감 방안

도 담겼다. 정부는 특히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분야 생계비를 줄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수도권 30만 호 건설을 위한 지구 지정을 서두른다. 1, 2차 지구는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3차 지구도 내년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다. 지구 지정이 불필요한 소규모 택지는 설계 등을 거쳐 연내에 사업 승인 등 주택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5대 광역시와 경기 수원, 충북 청주 등 6개 도시에서 선을 보인다. 도로,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로, 월(月) 교통비를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원래 요금보다 20~30% 가격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과 정기권 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험 도입된다.

정부는 9월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고교 무상 교육 범위는 내년 2학년, 2021년 1학년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알뜰폰 전파 사용료 감면 기간과 망 도매 제공 의무 기한도 2022년까지 연장에 통신비 부담도 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내버스에 와이파이 2만3047대를 설치해 통신 요금 절감을 유도한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롯데칠성음료

빅사이즈 커피로 지킨다

NEW

우라발을 살리는 빅사이즈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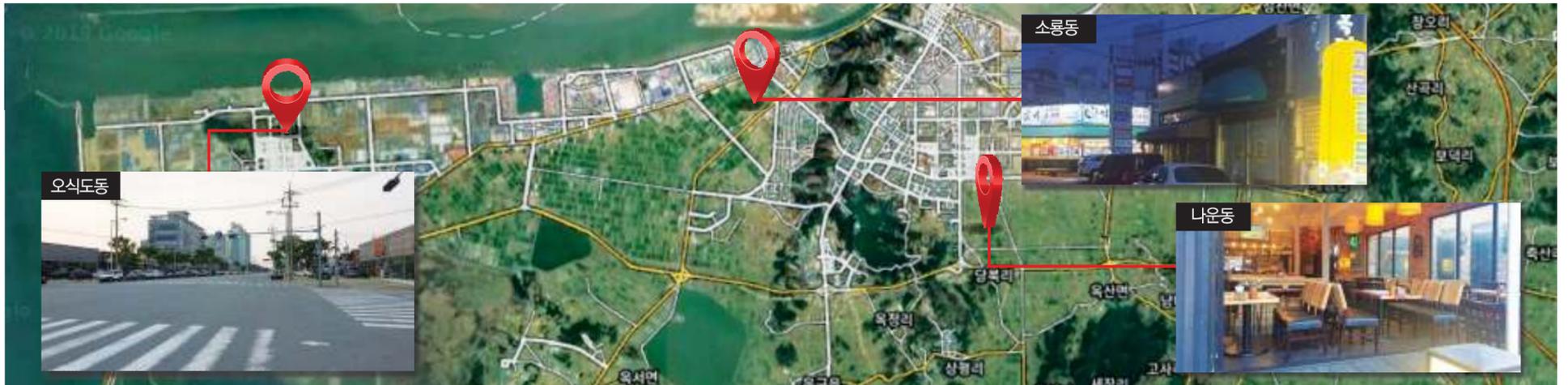
500ml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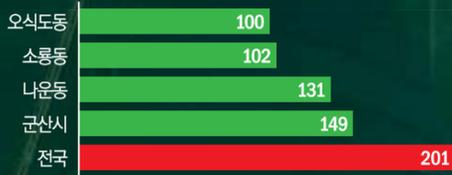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과거 GM·현대重 월급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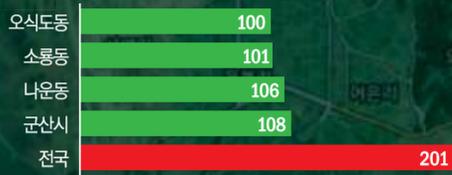
사라진 20일 축제... '매출 반토막' 호프집 주인, 긴 한숨



식당 매출액 비교 (3월 기준, 오식도동 = 100 가점)



술집·유흥주점 매출액 비교 (3월 기준, 오식도동 = 100 가점)



시간대별 매출 비율 (단위: %)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뮬레이션 결과

인기적 사라진 산단 주변

전북 군산시의 지역경제의 뿌리는 '대우와 현대'였다. 1997년 대우자동차가 군산시 소룡동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세웠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따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방인들은 산단 주변에 하나둘 자리를 잡았다. 소룡동과, 그 옆 나운동은 이들의 터전이 됐다. 2001년 대우차는 지엠에 팔렸지만 노동자들의 '지엠조끼'는 마을의 상징이자 자부심이 됐다. 2007년 현대중공업이 오식도동 국가2산업단지에 군산조선소를 설립했다. 2단지인 소룡동의 서쪽 바다를 매우며 형성됐다. 해안선이 바뀌었고, 땅에서 18km 떨어진 섬 오식도는 육지로 편입됐다. 노동력이 또 다시 밀물처럼 몰렸다. 오식도동 한가운데는 타지에서 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다. 사람들이 몰리자 자연스럽게 상권이 생겨났다. 오식도동과 소룡동, 그리고 나운동에는 낮이건 밤이건 사람들로 가득했다. 매달 20일 저녁이면 한국지엠과 현대중공업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또는 서로 모여 식당과 술집, 골목골목을 가득 채웠다. 이날은 두 회사의 월급날이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에게도 '축제의 날'이었다.

◇'주차장' 된 오식도동 4차선 도로... '대출' '락' 걸렸다는 소문 돌이 = 지역경제의 침체도 현대와, 이제는 이름이 바뀐 지엠으로부터 시작됐다. 두 거대기업이 떠나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자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오식도동을, 소룡동과 나운동을 떠나갔다. 이들의 주머니 사정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지난달 18일 오후 6시께 오식도동의 주요 상권인 가도로 주변에서는 행인 한 명 찾기 어려웠다. 4차선이나 되는 도로를 지나 자동차도 없었다. 그나마 양쪽 차선에 몇 대의 주차된 차량만이 도로를 지키고 있었다. 작년 말부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46·여) 씨는 "산단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밥이나 술을 먹는 것"이라며 "어차피 돌아다니는 차도 없고 사실상 도로가 주차장"이라고 말했다.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오식도동은 군산에서 가장 변화한 곳으로 손꼽혔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한국지엠, 협력사 등 노동자들은 퇴근 후 오식도동에서 저녁을 먹고 유흥을 즐겼다. 5년째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모(57·여) 씨는 "지금은 거의 점심 장사가 전부지

지역경제 중심 GM·현대重 폐쇄 유일한 프랜차이즈 빵집도 떠나 오식도동 인근 병원 고작 1곳 뿐 정부 지원 선착순... 헛걸음 태반

타지인 많았던 소룡동·나운동 노동자들 떠나자 가게 30% 폐업 정규직 많은 수송동은 타격 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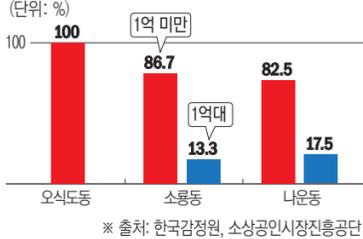
만 예전에는 저녁 장사였다"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회상했다.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가도로의 좌우로 서있는 상가 건물의 3분의 1가량은 유흥주점이다. 이따금씩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절반은 외국인이었다. 상권 몰락은 매출의 감소가 방증했다. 편의점을 제외하고 유일한 프랜차이즈 업체였던 파리바게트가 최근 문을 닫은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나 있던 치과도 지엠공장 폐쇄 뒤 마을을 떠났다. 현재 오식도동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병원이라고는 가정의료원 하나뿐이다.

6년째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모(50) 씨는 "확실히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의 폐쇄와 맞물려 매출이 급감했다"며 "군산조선소 폐쇄 이후 반토막 났고, 작년 한국지엠이 나간 뒤로 한 번 더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2년 새 매출이 4분의 1가량 줄어든 셈이다. 4년 전 고모에게 카페를 물

종합주택유형 매매가격지수



군산 지역별 아파트 시세 분포



려받은 이모(45·여)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씨의 카페는 과거 지엠 노동자들의 '아지트'였다. 이씨는 "오후 근무중인 지엠 노동자들이 점심 먹기 전에 근무복을 입고 삼삼오오 모이곤 했다"며 "지금은 어디서도 지엠 조끼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쪽은 메인 상권이라 그나마 낫지만 주변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전했다.

오식도동의 자영업자들은 대출에서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 씨는 "은행들이 오식도동에 대해서 '락'을 걸어줬다는 소문이 돈다"며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저리로 대출해주는 거 받으려 가봐도 선착순 식이라 헛걸음치기 다반사"라고 말했다. 조상완 농협은행 군산시 지부장은 "특례보증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오식도동

에 가면 1억~2억 원이 부족해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자금이 굉장히 목말라하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가게 10곳 중 3곳은 폐업"... 남은 상권은 수송동뿐 = 타지에서 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오식도동을 중심으로 터를 잡았다면, 한국지엠과 그 협력사 노동자들의 터전은 소룡동과 나운동이었다. 오식도동과 마찬가지로 소룡동과 나운동에도 타지인들이 많았다. 군산 토박이인 오모(64) 씨는 "산업단지 들어서고 나서 소룡동이나 나운동 주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익산이나 외국 등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며 "이곳 아파트, 빌라 등 대부분 거주지역도 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지난달 19일 저녁무렵 찾은 소룡동의 먹자골목에서도 식당에 앉아있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었다. 칠성로 주변의 호프집에는 6개 테이블 중 1곳에만 손님이 앉아있었다. 그마저도 가게 주인 장모(50) 씨의 지인이었다. 장 씨는 "이거 리가 먹자골목이 정말 핫냐"는 질문에 "맞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손님이 꽤 있었는데 작년 지엠 폐쇄 이후로 손님이 싹 다 사라졌다"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소룡동이나 나운동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7대 3으로 나뉜다"며 "7곳은 매출이 반토막난 곳인데, 1~2곳 정도가 그나마 먹고살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3에 해당하는 곳들은 이미 문을 닫았다.

나운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나운동의 상권은 먹자골목인 수송동과, 상가거리인 대학로 나뉜다. 먹자골목은 그 초입에 차병원원이 있어 '차병원 골목'이라고 불린다. 두

길은 '니은(ㄴ)'자 형태로 붙어 나운동의 주요 상권을 형성했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찾은 나운동의 수송동과 대학로에도 사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과거 옷소핑의 '성지'였던 대학로에는 운영 중인 옷가게보다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가게가 더 많은 상황이다. 군산에서만 33년간 택시운전을 해온 박모(55)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리 옷가게로 딱 차 있었고 사람도 넘쳤는데, 지금은 절반이 비어있다"며 "옷가게들이나 상점들은 장사를 접고 수송동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말했다.

박 씨의 말대로 지금 그나마 상권이 돌아갈 곳은 수송동, 그중에서도 '롯데마트 뒷골목'이라고 불리는 동수송2길 근방이다. 수송동은 나운동 동쪽에 붙어있지만, 오식도동이나 소룡·나운동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도로는 직선으로 뻗어있고, 비슷한 모양과 분위기로 지어진 낡지 않은 건물들이 촘촘히 들어서있다. 이런 차이는 두 지역 거주자들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군산 토박이이자 산업단지 지점에서 10여 년간 근무하고 있는 은행 관계자는 "업체 대표나 임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주로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리를 잡은 오식도동, 소룡동, 나운동과는 다른 거주지를 구하는 동시에, 산단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을 찾았다"며 "수송동이야말로 적임지였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외지인이 적었고, 고용상태가 안정적인 거주자가 많았던 만큼 수송동은 공장 폐쇄에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군산=김바리 기자 kimstar1215@ 김보름 기자 fullmoon@

지역 침체에 부동산 '곤두박질'... 1억 넘는 아파트 드물어

정부, 군산형 일자리 언급 영향 위기 속 기회 노리는 투자 늘어

장모(57) 씨는 10년 전 빚을 내 오식도동에 오피스텔 건물을 지었다.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면서 방은 싹 들어찼다. 임대수익도 짝짤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임대업자'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공장 폐쇄로 노동자들이 사라지자 지난해 방 한 개를 제외하고는 텅텅 비었다. 보증금을 없앤 건 이미 오래. 임대료도 2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낮췄지

만 방은 여전히 공실이다. 이대로는 이자비용도 낼 형편도 못했다. 강 씨는 현재 신용불량자가 됐다. 택시와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상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큰 타격을 미쳤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3월 기준 오식도동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매물 전체가 시가 1억 원이 채 안 된다. 소룡동과 나운동은 각각 86.7%, 82.5% 수준이다. 나머지도 2억 원을 넘기지 못했다. 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군산시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을 모

두합한 '종합주택유형' 매매가격지수는 올 5월 92.3으로 집계됐다. 전라북도 지역은 99.6이었다. 2016년까지 군산이 전북을 앞섰지만, 군산조선소가 폐쇄된 2017년 이후 전북이 군산을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틈타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외지인의 돈다발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오식도동에서는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오식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요새 값 낮아진 데다가 새만금이니 군산형 일자리니 정부

에서 집중적으로 키운다고 언론에 나오니 이걸 기회삼아 건물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현재 오식도동의 4층 건물 기준 시세는 4억~5억 원 정도다. 만약 압류돼 경매에 나간 물건의 경우 거기서 더 떨어진 2억~3억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

군산 소재 한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에서도 바람 잡으면서 투자를 독려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식도동을 돌아다녀 보면 대부분 건물 매매는 없고 임대밖에 없다"며 "최근 공장 폐쇄 위기 이후 이미 대부분의 건물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바리 기자 kimstar1215@ 김보름 기자 fullmoon@

남해안 바닷모래 채취 2년6개월 만에 재개

수산자원 훼손 등 이유로 중단 공급 줄어 가격 2배 이상 올라 해수부, 어민·골재업체와 합의

남해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2년 6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이달 안에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바다 밑에서 채취하는 모래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나 레미콘을 만드는 데 쓰인다.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확보하려면 바닷모래 등을 배합해야 한다.

그동안 바닷모래 채취는 환경 문제 탓에 남해·서해의 EEZ에 지정된 바닷모래 채취 단지와 서해 웅진군, 태안군 등 일부 연안에서만 이뤄졌다. 그러나 바닷모래 채취 작업이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수협과 어민 단체가 반발하면서 2017년 1월 남해 EEZ, 같은 해 9월 서해 연안, 지난해 9월부터는 서해 EEZ에서 차례로 바닷모래 채취

가 중단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바닷모래의 비중을 2022년까지 5%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골재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량은 2016년 2928만㎥, 2017년 1946만㎥, 2018년 31만4000㎥로 급감했다. 공급이 줄면서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바닷모래 가격이 2017년 1월 ㎥당 1만2000원에서 지난해 2만5000원으로 올랐다.

바닷모래 채취가 전면 중단되자 관련 업

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에서 바닷골재를 채취하는 업체는 총 39곳이다. 15곳을 회원으로 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올해 5월 말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6월 말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해수부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 과정이 마무리된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를 이달 재개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웅진군이 협의를 요청해온 서해 웅진군 선갑도 동남쪽 해역(9.5km)의 바닷모

래 채취 문제는 모래 사업자와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협의서가 빠져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웅진군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쳐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하면 모래채취업체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총 1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 된다.

환경단체는 선갑도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 해역과 가깝다며 반대하고 있다. 군산에서도 어정도 인근 EEZ에서 골재업체들이 바닷모래 채취를 추진 중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남북 간에 동질성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가 돼 나가는 과정에 기독교계가 앞장서 달라"며 "기독교에서 통합의 정치를 위해 더 역할을 해 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당국, 환율시장 개입 종료 외환보유액 석달 만에 증가

6월말 4030억7000만 달러 7월달러·운용수익 증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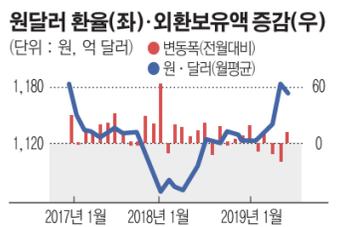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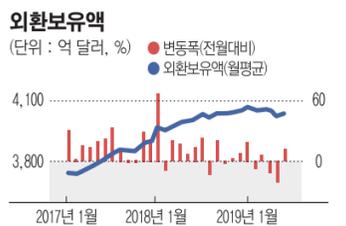
외환보유액이 석 달 만에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외환당국의 환율시장 개입이 종료된 데다, 달러화 약세와 운용수익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외환보유액은 전월 말보다 11억 달러(0.3%) 증가한 403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3월 이후 증가세이며, 올 1월 18억2000만 달러 증가(0.5%)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김원태 한은 외환회계팀장은 "미 달러화 약세로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크게 늘어난 데다 운용수익이 늘어 증가폭이 비교적 컸다"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주요 6개국 통화대상 달러화지수(DXY)인 달러인덱스는 96.13(한국시간 기준 96.19)을 기록해 전월보다 1.7% 하락했다. 직전 달에는 97.75로 2017년 4월(99.05)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유로화는 2.1%, 파운드화는 0.5%, 엔화는 1.7%, 호주달러화는 1.3%씩 각각 올랐다(절상).

5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154.7원으로 직전 월말보다 36.2원



(3.0%) 급락했다. 이는 2017년 1월 45.6원(3.8%) 하락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5월 평균 원·달러 환율도 전월보다 7.67원(0.6%) 떨어진 1175.62원을 기록했다.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4020억 달러)는 세계 9위를 유지했다. 1위는 3조1010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이 차지했다. 이어 일본(1조3080억 달러), 스위스(8043억 달러) 순이었다. 3월에 한국을 추월해 8위로 올라섰던 인도는 4219달러로 격차를 더 벌렸고, 브라질(3862억 달러)은 우리보다 한 계단 아래인 10위를 기록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年 1兆 투자

고위 당청회의서 의견 모아 "日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 중"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연간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성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왜 논의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차

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고, 언론 발표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상황과 전략적 측면을 감안해 (국회보단)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경제 활력 보강 대책들과는 별개로 반도체 소재

등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선제 투자를 통해 핵심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기간산업인 필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과 의지를 가졌다"며 "(경제 보복과 관련해) 일본 측에서 기사가 일요일 오전에 나왔는데, 바로 그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jihj@

이인영 "中企·자영업자에 투자 나서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공공일자리, 상생형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일자리 확충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공공일자리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우리 정부가 늘리려는 공공일자리란 소방관, 집배원, 요양보호사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하지만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라며 "기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밀양과



구미에서도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상생형 일자리 지원법'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법 등이 제출돼 있다"면서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위원회에 상생의 결정을 기대했다. 그는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반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제안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 원을 쏟아부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기회와 재기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뮤지컬·상황극으로 공직윤리 배워요"

고용부 등 '청렴樂 콘서트' 열어

공무원들이 뮤지컬과 상황극 등 알기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 윤리를 배우는 장이 열렸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樂(樂) 콘서트'를 열었다.

이 콘서트는 '공무원 행동 강령',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등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뮤지컬(맨 오브 라만차), 미술(빈센트 반 고흐), 상황극, 퀴즈 등 참석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령, 부패가 공직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참석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선후배와 세대 간의 청렴에 대한 생각과

공직관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현수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선배들이 청렴을 통해 공직 생활을 더 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모범을 후배 세대에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연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청렴은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과정을 중시하는 공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사 2년 차인 권재우 보건복지부 주무관은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에 뿌듯함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준호 고용부 감사관은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교육이 아닌 재미도 있고 내용도 피부에 와닿는 생생한 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관세세탁’ 하다 걸린 베트남 트럼프 칼날, 동남아 향했다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칼끝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향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발끈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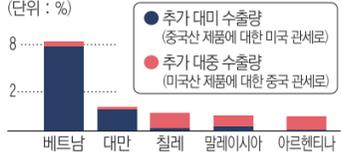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이 베트남에서 공정을 거쳐 내식성 철강(CORE)과 냉연강판(CRS)으로 미국에 우회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들 제품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 상무부는 이것이 미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관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의 철강 제품에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각각 관세를 부과했다. 이 시기부터 2019년 4월까지 베트남의 내식성 철강과 냉연강판의 대미국 수출은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32%, 916% 증가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미 상무부는 아르셀로미탈의 미국 법인, 뉴코어, US스틸, 스틸다이내믹스,

韓·대만 철강, 베트남서 우회수출
美 “관련 제품, 456% 관세 부과”
캄보디아도 중국산 세탁 의혹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동남아 국가 GDP 중 대미·대중 수출 증가 비율 (단위 : %)



캘리포니아스틸인더스트리, AK스틸의 요청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로 알려진 베트남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당시 “베트남이 중국보다 훨씬 더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가장 나쁜 착취자”라고 비난했다.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2014년 이후 200억 달러를 돌파해 지난해에는

39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베트남의 대미 수출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다.

이는 미국에 수출하는 상위 12개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특히 베트남의 대중 수입과 대미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베트남을 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을 겨냥하고 나선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베트남은 무역 흑자를 감소시킬 방안을 놓고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관세를 피하려고 캄보디아를 통해 중국산 탄소강 파이프를 수입한 미국 6개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중국 선적 대형 유조선인 퍼시픽알파호가 지난 5월 20일 이란 영해 인근 해상에서 정체 불명의 유조선과 접촉해 원유를 환적하고 있는 장면이 위성에 포착됐다. 사진출처 탱커트랙커스닷컴

中, 이란 원유 밀거래 의혹

美 제재후에도 비공식 루트로 거래한 정황 위성사진에 찍혀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한 이후에도 중국이 이란과 계속 거래하고 있는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이 공개됐다.

2일(현지시간) 니혼케이자이신문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산 원유 전면 금수 조치를 발동한 이후에도 중국이 비공식 루트로 이란과 계속 거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해상 환적이나 제3국을 경유하는 수법으로 이란산 원유를 밀수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원유 수송·보관 조사 전문업체인 탱커트랙커스닷컴(Tanker Trackers.com)이 공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 유조선인 퍼시픽알파호는 지난 5월 20일 이란 영해 인근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유조선과 접촉했다.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8일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퍼시픽알파호의 선적 형태가 원유를 가득 실은 상태로 보였다.

한적 시점은 미국이 한국·중국·일본 등 8개국에 적용하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철폐한 이후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 원유 수출을 제로(0)로 하려는 목적으로 5월2일 만료되는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유조선의 위

치를 표시하는 위성항법장치(GPS) 신호를 끄는 수법으로 환적 밀수출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미르 마다니 탱커트랙커스닷컴 운영자는 “행적을 숨기기 위해 종종 유조선들이 신호를 꺼버린다”며 “중국 유조선도 자신들의 행적을 숨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또 중국이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세관총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이란산 원유량 수입량은 107만t(약 790만 배럴)으로 전월 대비 67%나 줄었다.

그러나 5월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전월 대비 2.8배 늘어난 137만t(약 862만 배럴)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를 통한 원유 수입이 급증한 게 의심스럽다는 분석이다. 말레이시아는 중국, 이란과 전통적인 우호국이다.

이와 관련, 아시아 석유시장 전문가는 “중국이 미국의 이란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회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이란산 원유 밀수가 확인될 경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마·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美, 독립기념일 사상 최대 ‘군사퍼레이드’ 예고 미국 독립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2일(현지시간) 브래들리 장갑차가 워싱턴D.C.의 링컨기념관 옆에 도착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경례’로 명명된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탱크와 장갑차가 행진하고 전투기들이 축하 비행을 하며 역대 최고의 불꽃놀이가 펼쳐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루비니 “내년 세계경제에 끔찍한 시대될 것”

“G2 무역전쟁·유가 상승, 글로벌 경기침체 위험 불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적중시켜 명성을 얻은 ‘닥터뒀’ 누리엘 루비니 루비니 매크로어소시에츠 대표가 또 다른 리세션(Recession·경기침체)을 경고했다.

루비니는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은 세계 경제에 끔찍한 시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지정학적 긴장에 의한 유가 상승이 세계를 리세션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루비니의 예언과는 대조적으로 긍정적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한 것에 안도감을 보이는 한편 연방준비제도도 유럽중앙은행 등 중앙은행들이 경

기를 지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루비니는 “기준금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에 있고 일부는 마이너스 권이어서 중앙은행들이 충격에 대응할 여력이 약해졌다”며 “높은 수준의 부채도 압박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리세션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시장의 낙관론은 붕괴할 것”이라며 “이러저 통화정책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 측면에서 루비니는 “탈세계화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며 “일단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면 이번 이혼은 미국과 옛소련의 분열과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한마디



누리엘 루비니 루비니매크로어소시에츠 대표. 신화뉴스

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냉전시대가 온다는 예측이다.

또 루비니는 “이란을 둘러싼 유가 급등 충격이 1970년대 오일쇼크와 같은 스테그플레이션 전망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가 함께 오는 최악의 상황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AB인베브 “양꼬치엔 버드와이저!” 홍콩서 ‘올해 세계 최대 IPO’ 도전

세계 1위 맥주업체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가 올해 들어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국시장이 AB인베브가 자신 있게 IPO에 나서는 배경이다.

AB인베브의 아시아 법인인 버드와이저 브루잉컴퍼니APAC(이하 버드와이저 APAC)는 이날 홍콩증시 상장을 통해 최대 98억 달러(약 11조4327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대로라면 AB인베브의 IPO는 올해 들어 세계 최대이자 식품·음료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버드와이저APAC는 소매 판매 기준 아시아 최대 양조업체다. IPO 공모 예상가 범위는 주당 40~47홍콩달러로 잡았으며 총 16억3000만 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IPO 조달액은 83억~98억 달러에 달해 5월 우버테크놀로지(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면서 세웠던 올해 최대 기록인 81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현재 식품·음료 기업 최대 IPO는 2001년 크래프트푸즈의 86억8000만 달러다. 초과 배정 옵션이 시행되면 버드와이저 APAC의 IPO 자금조달 규모는 최대 112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 버드와이저 APAC는 이날 글로벌 로드쇼에 돌입했으며 19일 홍콩증시에서 첫 거래하게 된다.

이번 상장은 모회사인 AB인베브의 부채 부담을 덜고 아시아법인의 인수·합병

글로벌 톱10 식품·음료 기업 IPO (단위 : 억 달러)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M&A)에 실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버드와이저APAC는 한국과 중국, 호주, 인도, 베트남 등이 주요 시장이다.

버드와이저APAC의 IPO 규모는 그만큼 투자자들이 아시아시장에서 AB인베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증거라고 WSJ는 풀이했다. AB인베브는 북미 시장에서 젊은이들의 취향이 맥주에서 위스키 등으로 변하는 것은 물론 술을 삼가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시장에서는 젊은 세대가 맥주를 선호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1분기 AB인베브 전체 매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달했다. 금액상으로 아시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6% 늘어난 84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초시대 행복 생활

5G, ICT... 모든 게 가능한 초(超)시대에도
 홀로인 어르신들께 가장 필요한 건
 더 빠른 속도나 편리함보다 낯씨, 운세, 농담 같은
 외로움을 덜어 줄 작은 한마디이기에-
 SK텔레콤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술이 이웃이 되는 시대



초시대, 생활이 되다

SK텔레콤이 8개 지자체와케어매니저를 통해
 홀로 어르신 2,100가구에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는 서울 성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중구, 강남구, 서대문구, 경기 화성시, 대전 서구와 함께 합니다

☑ 경기 침체 ☑ 고용 불안

‘연체 늪’에 빠진 서민금융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경기침체로 팍팍해지면서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의 연체 금액 증가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서민금융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희망홀씨 대출액은 3조6612억 원, 연체율은 2.6%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연체율은 고용악화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악화로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시중은행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상품이다. 생계비 등을 최고 연 10.5% 금리로 빌릴 수 있어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해당 대출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악화와 고용불안으로 저소득층의 생계가 불안정해졌다는 의미다.

새희망홀씨 대출액은 2016년 2조 2720억 원, 2017년 2조9991억 원, 2018년 3조6612억 원을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상품이 출시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누계액은 18조973억 원에 달한다.

최근 3년 동안 새희망홀씨 대출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연체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희망홀씨 연체율은 2016년 2.2%, 2017년 2.3%에 이어 작년에는 2.6%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빛이 있는 서민들을 돈

비상등 켜진 ‘서민금융’

새희망홀씨

	2016년	2017년	2018년
대출액(억 원)	2조2720	2조9991	3조6612
연체율(%)	2.20%	2.30%	2.60%

미소금융 연체율



햇살론(근로자 대상) 대위변제율



새희망홀씨 연체율 2.6%...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
1년새 햇살론·미소금융 각각 0.4%P·0.5%P 증가
“대출 전 채무상담... 개인회생 등 제도적 지원해야”

으로 지원해주는 재정정책을 폈는데, 이런 방향은 비효율적”이라면서 “돈을 주기 전에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 진단을 먼저 내리는 채무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과 미소금융의 연체율도 오르는 추세다. 햇살론은 정부 공적기금으로 재원의 50%,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에서 나머지 50%를 마련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특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상승세다. 대위변제율은 정부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비율로, 2017년 11.7%에서 2018년 12.1%로 증가했다.

미소금융은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미소금융 연체율은 2017년 6.1%, 2018년 6.6%를 기록해 전년도보다 0.5%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마저 연체율이 높아지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 원장은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의 15%는 사채업으로 빠진다는 조사가 있다”면서 “서민들이 빚으로 빚을 갚기보다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처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지방은행장 만난 윤석현 금감원장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해야”

“지방 소재 산업 구조조정 때까지 희생가능 기업 옥석가려 지원을”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지방 소재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지방은행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GM대우 등 지역의 굵직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은행의 장점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생·중소기업에 대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고 일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옥석가리기 해 필요한 자금증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는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의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기업 등 차주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대출금리 운영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며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법상 금지된 포괄근 담보를 요구하는 일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 초청 지역상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이 같은 당부와 함께 지역기반이 강한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원장은 “지방은행 특성에 맞게 감독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대손충당금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3월 감독규정에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만간 시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 실물경제에 재투자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윤 원장은 “경영실태 평가 및 리스크 평가 시에도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우리금융, 3兆 혁신성장펀드 출범

우리금융그룹은 혁신성장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원,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를 목적으로 3조 원 규모의 ‘우리 혁신성장펀드’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올해 1호 우리혁신성장펀드 출범을 시작으로 2020년 2호, 2021년 3호 펀드에 각 1000억 원씩 총 3000억 원을 투

자할 예정이며, 하위펀드의 선정과 모집을 통해 매년 1조 원씩 총 3조 원 규모의 펀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혁신성장펀드에는 우리은행이 앵커 투자자로, 우리종합금융과 우리프라이빗 에쿼티자산운용 등 그룹사가 펀드투자자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1호 펀드에는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도 참여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www.douzon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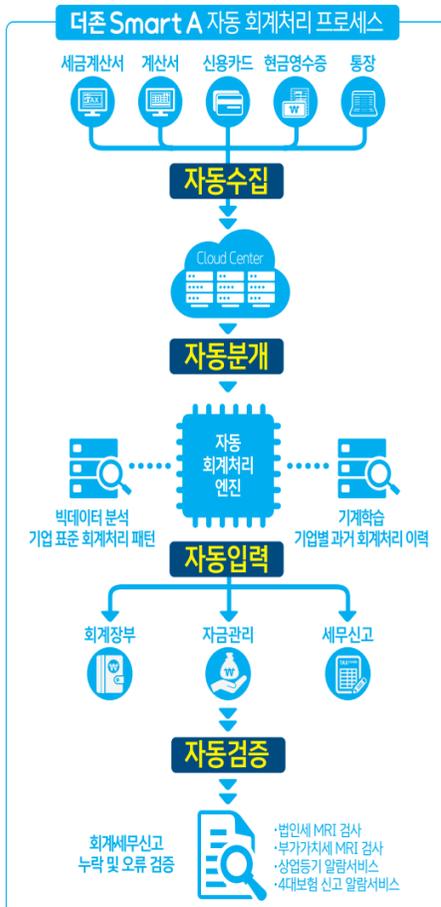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술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현대차 새 심장, 고출력·친환경 두 토끼 잡았다

CVVD 엔진 세계 첫 개발
엔진밸브 개폐 시간 자동 조절
성능·연비 4~5% ↑ 매연 12% ↓
8세대 쏘나타 터보에 첫 적용

현대기아자동차가 엔진 효율을 높이는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CVVD:Continuously Variable Valve Duration)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양산에 적용했다. 이 엔진은 신형 쏘나타 터보에 탑재된다.

현대기아차는 3일 경기 고양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현대기아차 신기술 미디어 설명회'를 열어 CVVD 기술로 만든 '스마트스트림 G1.6 터보' 엔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2000년대 들어 현대차그룹의 주력 엔진은 세타였다.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났으나 생산원가가 비싸고 고성능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모델에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이 뚜렷했다. 이에 아랫급 엔진을 적극 활용하고 여기에 가변밸브 시스템을 추가해 최고출력을 만회하겠다는 제품 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예컨대 엔진은 시동이 걸리면 흡기와 배기밸브가 연속해서 빠르게 움직인다. 구형 엔진의 경우 회전수가 올라가도 엔진 밸브 움직임이 항상 일정했다. 때문에 고회전에 오르면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고 연비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 배기가스마저 더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가변식 밸브다. 한마디로 가변 밸브 기술은 하나의 특정 엔진이 아닌, 엔진 위에 장착하는 밸브 시스템이다. 시스템 하나를 개발해 놓으면 여러 엔진에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가변밸브 엔진은 회전수가 올라가면 스스로 밸브 열림 폭과 열림 각도 등을 적절하게 움직인다.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공개한 CVVD엔진은 밸브가 열리는 시간까지 제어한다.

앞서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파워트레인 콘퍼런스에서 관련 기술을 선공개했는데 △엔진 성능 4% △연비효율 5% 상승 △배출가스 12%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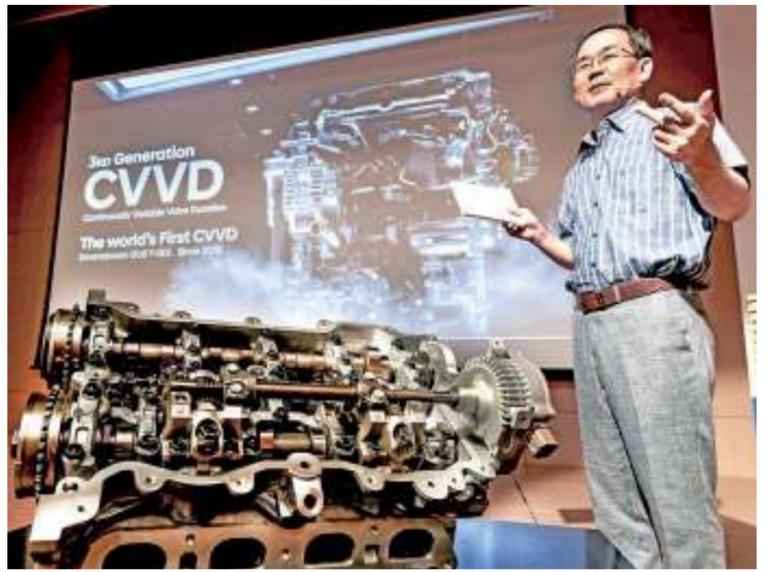
이날 현대기아차가 공개한 스마트스트림 G1.6 T-GDi 엔진은 배기량 1598cc의 4기통 1.6리터 가솔린 터보(감마)엔진으로 최고출력 180마력을 낸다.

여기엔 CVVD 기술뿐 아니라 연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저압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LP EGR)이 국내 최초로 적용됐다. EGR시스템은 엔진에서 연소된 배기가스 일부를 다시 엔진으로 재순환시켜 연소실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연비를 개선하는 한편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장치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신기술 개발이 엔진 분야에서 퀀텀 점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본부장 알버트 비어만 사장은 "독창적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CVVD 기술은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CVVD 기술을 처음으로 갖춘 1.6터보 엔진은 하반기 출시 예정인 8세대 쏘나타 터보에 처음 사용된다. 앞서 2.0리터급 중형차에 주로 쓰인 세타2 엔진은 단가가 비싸고 고출력 전용인 만큼, 향후 이를 대신할 2.0리터급 누 엔진, 또는 1.6리터급 감마 엔진에 이런 CVVD 시스템을 더해 모자란 출력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하경표 현대자동차 연구위원이 CVVD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기아차

“日, 치밀하게 경제보복하는데 우린 서로 비난하기 바빠서야”

박용만 상의 회장 “정치가 경제를 뇌취야” 쓴소리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미·중 통상전쟁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등과 관련, 뒤늦은 대응에 나선 정부와 정치권에 쓴소리를 날렸다. 정치가 경제를 뇌취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박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빠”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모두 보호무역 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통상 분쟁과 외교 갈등을 둘러싼 국내 정치권의 공방과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회장은 이어 “다들 전통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폭풍처럼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예견해 첨단기술과 신산업에 몰입한다”며 “우리는 기반 과학도 모자란 데다가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의 코미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규제 법안은 경쟁하듯 속속 더해지고 있고, 기업은 일부가 지은 잘못 때문에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교육 등 모든 큰 서비스 산업 기회는 완전 투망 밀봉식으로 닫혀 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전원이 달려들어 역적 취급을 한다”며 “가끔 도움이 되는 법안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나마 올해는 상반기 내내 개점휴업으로 지나갔다. 이 모든 쓰나미의 와중에...”라고 여야 정치권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 밖에 박 회장은 “어·아·정 모두 ‘경제 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면서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붙들어 줄 것은 붙들고, 놓아줄 것은 놓아줄 때가 아니냐”라고 역설했다.

송영록 기자 syr@

한화첨단소재 ‘美 車소재 공장’ 추가 투자 검토

범퍼·시트·언더보디 복합소재
GM 등 현지 완성차 업체 공략

한화첨단소재가 미국 앨라배마에 위치한 자동차 소재 공장에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증설을 통해 미국 현지 완성차 업체에 대한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3일 한화첨단소재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마주 오펠리카시 북서부 산업 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소재 공장의 자동차 경량화 부품 생산 설비 증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번 달 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오펠리카시 측에서는 32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투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투자가 결정되면 앨라배마 공장은 2005년 설립 이후 총 1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앨라배마 자동차 소재 공장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투자는 거의 확정적이지만, 아직까지 투자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화첨단소재는 앨라배마 공장에서 △유리섬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GMT) △저중량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LWRT)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등 자동차 소재를 생산한다.

GMT 브랜드인 ‘스트롱라이트(StrongLite)’는 글로벌 GMT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기술력과 품질 모두를 잡았다. 폴리프로필렌(PP) 수지에 유리섬유 매트가 강화제로 보강된 판상 형태의 복합소재인 스트롱라이트는 우수한 결합력에 강도 역시 스틸과 거의 비슷하지만 중량은 20~25% 가볍다. 디자인 자유도가 높고 가공 생산성 역시 좋아 언더커버와 고강도 플라스틱 범퍼, 의자 등받이 등 구조부품에 적용된다.

한화첨단소재의 LWRT 브랜드인 ‘슈퍼라이트(SuperLite)’ 역시 글로벌 1위 제품이다. 저압에서 열성형이 가능한 시트

형태의 복합소재인 슈퍼라이트는 중량 대비 우수한 강도, 뛰어난 소음 흡수 기능, 동시 트리밍(Trimming) 성형과 같은 장점을 갖춰 자동차 헤드라이너, 햇빛가리개, 언더보디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된다.

한화첨단소재는 이번 증설로 미국 현지 완성차 업체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고객사인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 공장 뿐만 아니라 GM 등 현지 완성차 브랜드까지 부품 공급선을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대·기아차의 미국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현지 완성차를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첨단소재는 미국 앨라배마와 버지니아, 멕시코, 유럽의 체코와 독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현지 생산법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영토를 확대해 자동차 기업의 부품 표준화와 글로벌 소싱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 반도체 부문 100% 성과급 받는다

SK하이닉스도 같은 수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에게 100%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8월 사업부 별로 목표 달성 장려금(TAI)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급률을 각각 통보했다.

TAI는 성과급 중 하나로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사업부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의 평가를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

이번 TAI 지급률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반도체 사업부, 소비자가전(CE) 부문의 생활가전 사업부와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모두 100%로 전해졌다.

반면 IT·모바일(IM) 부문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 등을 다루는 네트워크 사업부는 100%를 받고, 스마트폰과 관

련된 무선 사업부는 50%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하반기 삼성전자가 지급한 성과급은 DS 부문 100%, CE 부문 50~70%, IM 부문은 최저인 25% 수준이었다. 5월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에프앤가이드 집계)는 6조595억 원으로 반도체 슈퍼호황을 누리던 전년 동기 대비 59.3% 줄어든 수준이다.

한편 반도체 부진을 겪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전년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록 기자 syr@

포스코, 세계경제포럼서 ‘등대공장’ 선정

제조업 미래 선도...국내 첫 등재

포스코는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할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은 1일부터 3일까지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19 세계경제포럼’에서 포스코를 세계의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으로 선정했다.

등대공장은 어두운 밤하늘에 ‘등대’가 불을 비추 길을 안내하듯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도입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공장을 뜻한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부터 전 세계 공장들을 심사해 매년 2차례 등대공장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전까지 세계의 등대공장으로 등재된 공장은 총 16개소다.

국가별로는 유럽 9개, 중국 5개, 미국 1개, 사우디아라비아 1개다. 지멘스, BMW, 존슨앤존슨, 폭스콘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선정된 바 있다.

이날 발표에 따라 포스코를 포함해 전 세계 10개소가 등대공장으로 새롭게 등재됐다. 세계경제포럼은 포스코의 등대공장 선정에 대해 “포스코는 철강산업에서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대학, 중소기업, 스타트업들과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철강산업 고유의 스마트 공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스마트 기술을 생태계 전반에 적용, 안전하고 경제적인 생산체제 구축에 집중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히며 스마트팩토리 체계 구축에 앞장서 왔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르노삼성 ‘메이드 인 부산 캠페인’
오거돈 부산시장 ‘뉴QM6’ 구매

르노삼성자동차가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Made in Busan 캠페인’에 나섰다.

3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에는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이 함께했다. 부산 지역 관공서들이

관용차를 바꿀 때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생산한 차를 구매하는 등 지역 생산품 구매를 독려한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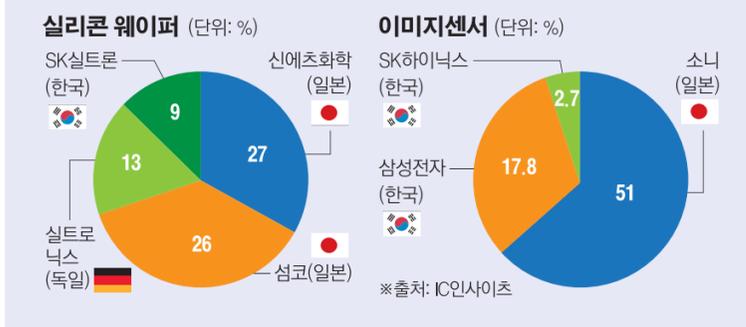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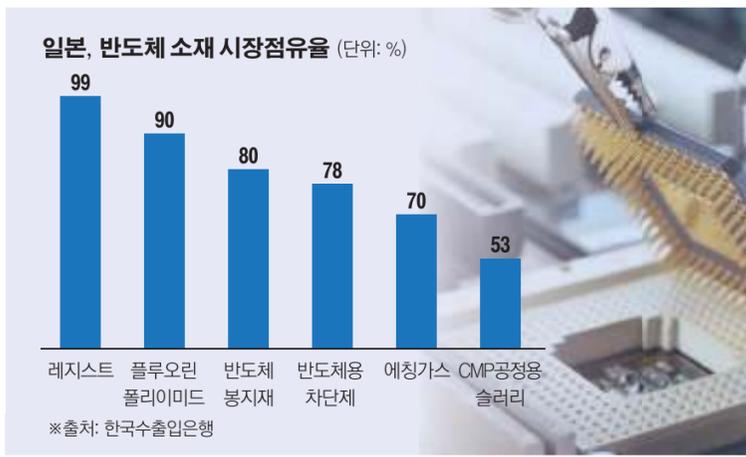
오거돈 부산시장은 캠페인 시작에 맞춰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지난달 선보인 THE NEW QM6 LPe 모델을 이날 개인적으로 구매했다. 부산시 또한 부산상공회의소에 캠페인 참가를 요청하는 등 지역 제조업 살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이해진(왼쪽) 르노삼성 제조본부장이 3일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QM6차량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르노삼성

日, 때린 데 또 때리나... 다음 보복도 반도체 가능성



웨이퍼·이미지센서·반도체장비 日 점유율 높아 추가 규제 긴장감
삼성파운드리 EUV 라인 양산 차질
車업계도 '전자 장비' 유탄 우려

일본발 경제보복 쓰나미가 우리나라의 전자사업 뿌리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이어 수출 규제 강화 품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산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칼 끝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를 겨냥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추가 수출 규제 품목으로는 웨이퍼와 이미지센서, 반도체 장비 등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이 거론된다. 한국 경제의 급소인 반도체를 찔러 효율적인 경제보복을 하겠다는 속셈이다. 일본이 처음 규제한 수출 품목 역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레지스트 등 3개였다. 일본의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90%를 넘고, 에칭가

스는 70%를 웃돈다. 당장 이 3가지 품목 만으로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과 폴더블폰 사업 계획에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박유익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확대를 위해 하반기부터 EUV(극자외선) 라인의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해당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인 EUV용 포토 레지스트를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타다시 유노 IHS마켓 디스플레이 연구 책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LCD 디스플레이 제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면서도 "삼성 갤럭시 폴드 스마트폰이 영향받을 수 있다. 갤럭시 폴드는 일본의 전자 재료 업체인 스미토모 화학의 불화 폴리이미드 필름을 사용해 생산된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기초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도 후속 보복 조치 카드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실리콘웨이퍼 시장에서 일본 신에츠, 섬코는 각각 점유율 27%, 26%를 차지하며 1, 2위를 달리고 있다. 국내 SK실트론은 9% 수준이다. 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 전공정 소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일본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는 이미지센서도 일본이 장악하고 있다. 이미지센서는 소니 점유율이 51%로 압도적이다. 특히, 고화소 이미지센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절

대적이다. 각종 카메라 센서가 필요한 사물인터넷(IoT) 기기에도 영향이 클 수 있다. 삼성전자가 점유율 17.8%로 소니의 뒤를 쫓고 있다.

일본산 반도체 장비도 비수가 될 수 있다. 일본 반도체 장비의 경우 도쿄일렉트론(점유율 15.1%), 고쿠사이일렉트릭(2%), 히타치하이테크놀로지스(2%), 다이후쿠(1.6%) 등의 기업이 글로벌 상위 10 위권에 있다. 이들 업체는 반도체 클린룸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 앞서 ASML(네덜란드), 램퍼서치(미국) 등의 기업들도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지만, 장비 업체별로 생산하는 품목이 다르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 업체의 장비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OHT(반도체웨이퍼 이송시스템)와 트랙장비의 경우 일본의 다이후쿠와 도쿄일렉트릭의 제품 성능이 뛰어나 해당 제품을 주로 이용한다"며 "일본 장비 의존도가 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의 전장화가 진행되면서 기본적으로 차에 들어가는 전자장비가 많아졌다. 반도체와 메모리 분야가 타격받을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IHS마켓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미 한국의 전자 제품 수출 부문은 6개월 연속 수축했다"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 무역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SUMMER GARDEN LAND OPEN!!
2019.07.06 OPEN!
'성명어 가든랜드 패키지를 오픈'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02.710.7111
서울가든호텔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8 (도화동) | www.seoulgarden.co.kr
Seoul Garden Hotel



국산차 美 수출, FTA 첫해 수준으로 줄어

국산차의 미국 수출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3월 관련업계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산차의 미국 수출은 2012년 3월 한미 FTA 체결 당시 수준으로 줄었다.

2010년 상반기 국산차의 미국 수출은 24만3055대였다. 이후 한미 FTA 체결(2012년 3월)을 시작으로 미국 수출이 증가했다. 2015년 상반기 미국 수출은 5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 118.2% 증가한 53만440대에 달했다. 현지 생산분을 제외하고 국산차가 상반기 미국 수출 5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를 정점으로 수출은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듬해인 2016년 상반기 1.9% 감소한 52만239대에 머물렀다. 이후에도 감소세가 멈추지 않아 올해 1~5월 누적 판

매는 35만6481대까지 줄었다. 올 상반기의 경우 6월 판매분의 집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임을 감안해도 한미 FTA 원년인 2013년(38만1403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국산차의 미국 수출 감소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이 침체에 들어간 데다 기아차가 미국 시장을 겨냥해 2016년 멕시코에 세운 조립공장이 2017년과 2018년 상반기에만 각각 6만 대 안팎의 신차를 미국으로 보냈다. 멕시코산이 미국에 팔리면서 국내 생산 수출수량이 줄어든 것이다. 매년 상반기 6만3000대 수준의 북미형 닛산 로그를 수출했던 르노삼성도 올해는 잇따른 파업 탓에 3만8000대 수출하는데 그쳤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대오일뱅크 '정유서 화학으로' 석화 공장 증설에 2600억 투자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인 현대케미칼과 현대코스모를 통해 아로마틱 석유화학 공장 증설에 총 2600억 원을 투자한다. 아로마틱은 혼합자일렌을 원료로 파라자일렌과 톨루엔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분야다. 이들 제품은 합성섬유, 건축자재, 기계부품소재, 페트병 등을 만드는

데 폭넓게 쓰인다. 현대케미칼은 1000억 원 규모의 설비 보완 및 증설공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가 끝나면 아로마틱 원료인 혼합자일렌 생산능력은 연간 120만 톤에서 140만 톤으로 확대된다. 현대코스모도 최근 160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 계획을 확정하고 상세 설계에 착수했다. 내년 6월 공사가 완료되면 대표 아로마틱 제품인 파라자일렌 생산능력은 현재보다 18만 톤 늘어난 연간 136만 톤에 이르게 된다. 변효선 기자 hsbu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의 도전이 금융의 역사가 되도록

대한민국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의 혁신을 넘어
더 나은 금융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끝없는 도전으로
금융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서버해킹 효과적 대응 위해 종합보안 솔루션 필수”

SGA솔루션즈 ‘시큐리티 서밋 2019’ 기자 간담회

“서버 공격의 위협과 보안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효과적인 방어 방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합 보안 솔루션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은 필수가 됐습니다.” 최영철 SGA솔루션즈 대표는 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SGA 시큐리티 서밋 2019-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큐리티’ 기자간담회에서 차세대 라인업인 서버 보안 ‘레드캐슬(RedCastle)’을 소개하면 이같이 밝혔다.

서버 공격자의 방법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최 대표의 생각이다.

최 대표는 “보안 환경이 바뀌고 있고 단일 솔루션으로는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며 “지능적 지속 위협(APT)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A부터 Z까지 모든 솔루션을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종합적인 보안 대응을 위해서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했다.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해 시스템 보안, 엔드포인트(PC) 보안 및 APT 보안, 응용 보안 자체 핵심 기술에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블록체인의 4차 산업 IT 기술을 접목해 종합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주력인 서버 보안 ‘레드캐슬’은 서버에 대한 해킹 공격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SGA솔루션즈는 서버 보안

“서버 공격 방법 갈수록 고도화... 단일 솔루션으로는 막기 힘들어” 3D 시각화·통합관리 기능 강화 새 보안 솔루션 ‘레드캐슬’ 공개

의 ‘3D 시각화’ 및 ‘통합 관리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통해 차별화된 사업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표는 “서버 보안 솔루션을 통해 운영체제 관리자의 계정이 해킹되더라도 2차 인증이 있어야만 파일 접근 권한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레드캐슬의 핵심 기능”이라고 말했다.

3D 시각화 솔루션 ‘비주얼캐슬(VisualCastle)’은 운영체제(OS) 감사 로그와 ‘레드캐슬’ 보안 감사 로그에 대한



최영철 SGA솔루션즈 대표가 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SGA 시큐리티 서밋 2019-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큐리티’ 기자간담회에서 차세대 라인업인 서버 보안 ‘레드캐슬(RedCastle)’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SGA솔루션즈

3차원 시각적 표현을 통해 공격 침투 경로를 추적하고 실행한 명령어를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늘어나는 서버와 작동 환경을 서버 운영상태를 화면으로 표시해줌으로써 현황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통합관리 솔루션 ‘엔터프라이즈캐슬(EnterpriseCastle)’은 대규모 IT 환경에서 ‘레드캐슬’ 통합 정책 관리를 통해 실시간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등 통합 관제와 함께 이상 행위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다.

최 대표는 APT 보안 분야에서 축적된 보안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안 사고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능적·지속적인 위협 공격(APT)으로, 이에 대한 금전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APT 공격 대응을 위해 글로벌 보안업체들은 보안 기술 통합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센트리APT(SentryAPT

)’는 서버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보안 관제 등 자체 핵심 기술력을 통합한 APT 보안 솔루션으로 자체 보안 관제 제품에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진보적인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 및 대응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 관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SGA솔루션즈는 생체인증 기반의 블록체인의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자회사 SGA블록체인은 지난해 출범한 이래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블록체인 공공 선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공개한 생체인증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트러스트채널 FB(TrustChannel FB)’는 생체 인식 기반 전자서명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관리를 통해 신뢰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했다.

최영철 대표는 “통합 보안 실현을 위해 오랜 기간 꾸준히 준비해온 단위 기술 및 제품 개발과 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매출 및 이익 확대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차세대 통합 보안 제품 라인업 확보로 제품 인지도 및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채널 체계 확립에 따른 솔루션 시장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내 1위 통합 보안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중기부·기보, 유망 창업기업 최대 3억 지원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시행... “2022년 신규투자 1조 목표”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엔젤투자 활성화 정책 ‘제2탄’을 발표했다. 국내에 9번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1~5월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제2벤처 봄’ 조짐이 보이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중기부와 기보는 3일 서울 역삼 팁스타운에서 엔젤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 시행 및 ‘기보 엔젤 파트너스’ 발대식 행사를 열었다. 11일에는 유니콘 육성을 위해 기획했던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기업들과 유니콘기업,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수여 및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로 유망 스타트업이 창업 자금을 쉽게 확보하고, 가능성을 발휘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엔젤투자자는 유망 스타트업에 제대로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는 윈윈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엔젤투자가 따라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엔젤플러스’ 프로젝트로 제2벤처에 날개를 달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은 제2벤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3일 서울 역삼 팁스타운에서 열린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 시행 및 ‘기보 엔젤 파트너스’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봄 가시화의 첫 번째 후속조치였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뒤이은 두 번째 조치로, 민간(전문엔젤·액셀러레이터)이 자체적으로 투자한 유망 창업 초기 기업을 추천하면 기보가 투자액의 2배까지 보증하고, 보육·투자 등 단계별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엔젤투자는 기업이 창업하면서 처음 받게 되는 투자로, 추후 벤처캐피털로부터 벤처투자를 받기 전까지 생존하는 데 긴요한 자금이다. 중기부와 기보는 이를 세부적으로 파트너스에는 5000만 원 이상 투자 및 보육(액셀러레이터의 경우)한 기업

중 연간 2개 기업까지 추천권이 부여된다. 파트너스 구성 기준은 4개 이상 기업에 2억 원 이상 투자한 전문엔젤, 보육공간 입주기업에 투자한 액셀러레이터가 해당한다.

이렇게 파트너스가 기업을 추천하면 먼저 기보 파트너스 보증을 통해 3억 원 한도 내에서 엔젤투자액의 2배까지 지원하고, 보증비율 100% 및 보증료 0.3% 감면의 우대사항을 제공한다. 엔젤투자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배수와 무관하게 2억 원까지 보증해준다. 이후 매출·고용 등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별도로 선발해 포스트엔젤보증(기업당 최대 30억 원 보증, 2020년 시행) 및 후속 투자를 제공한다. 또한 후속 투자 유치 기업의 엔젤투자자 지분(구주)을 기보가 인수하는 엔젤 구주투자 제도를 시행해 엔젤투자자의 조기 회수 및 유동성 확보, 재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후속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기보가 VC협회와 협력해 IR 라운드데이 및 같은 분기별 IR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향후 2022년까지 엔젤 신규투자 규모가 1조 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과기부 ‘만화로 보는 해킹메일 대처법’ 발간

정부가 해킹 메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화 형태의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해킹 메일 대처법’을 제작, 발간한다고 3일 밝혔다. 해킹 메일은 해커가 공공기관·기업 또는 지인으로 가장

해 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수신자가 열람할 경우 악성코드가 유포돼 수신자 정보가 유출되거나 시스템이 파괴되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최근 명예훼손 출석통지서(경찰청 사칭), 미지급 세금계산서(국세청 사칭), 계정정보 업데이트 알림(인터넷포털 사칭),

채용 이력서 제출(기업 대상) 등 이용자들의 열람을 유도하는 해킹 메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정부 합동으로 발간하는 홍보 만화에는 △해킹 메일 사고 사례와 원인 소개 △메일 이용자가 해킹 메일을 판별하는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책자는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에서 웹툰 형식으로 게시된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조성제 에몬스가구 사장

“경기 침체에도 매출 신장... 하반기 품질경영 이어갈 것”

상반기 가정용 가구 매출 6% ↑
올 2200억 매출 달성 쉽지않아
IoT·친환경 소재 신제품 발표



원으로 전년 23억 원에서 77% 감소했다. 영업이익 감소와 관련해 조성제는 “비용 절감을 노력하고 있다”며

“요새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없다. 건설·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에몬스는 가정용 가구 부문에서 상반기에 매출이 전년 대비 6% 신장했다. 하반기에는 영업이익 개선 노력을 하면서도 품질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조성제(사진) 에몬스가구 사장이 3일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에몬스 본사 전시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반기 전략을 밝혔다. 조 사장은 주 52시간 근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2019 가을·겨울(F/W) 가구 트렌드 및 신제품 품평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말 제시한 ‘2019년 매출액 2200억 원 달성’에 관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털어놨다. 이어 “가정용 가구 부문은 신장했지만, 아파트에 대량 납품하는 특판 가구는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에몬스의 매출은 가정용 가구에서 70%, 특판용에서 30% 발생한다. 그는 “특판 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내년 입주 물량을 고려하면 내후년에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몬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2008억 원으로 2017년 1904억 원에서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억

만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에몬스의 품질은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도 영업이익이 대폭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에몬스는 2019 F/W 브랜드 콘셉트를 ‘생활을 바꾸는 만남’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 사장은 “주 52시간, 워라벨 등의 영향으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생활이 바뀌면서 공간도 바뀌고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에몬스는 이날 품평회에서 지난 시즌에 이어 IoT, 친환경 소재 가구 등을 선보였다.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는 ‘대한민국 제품혁신상’에서 대상을 받은 ‘이모션 매트리스’는 센서가 호흡·심박수를 체크해 수면 상태를 감지하고 모션을 작동한다. 무호흡, 코골이 시진동, 알람 시 등판 상승 등 8가지 슬립 케어 모션과 6가지 슬립사운드가 내장돼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조명을 조작할 수 있는 ‘루아르’ 침대는 조명의 조도와 색, 온도를 앱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 사용자의 수면을 인식해 자동으로 조명을 끄고 기상 시 컬러테라피 조명을 켜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나홀로 호주 진출”... 현대홈쇼핑의 ‘무한도전’

해외 진출 나섰던 홈쇼핑 업계 성과없이 철수하는데 높은 경제 수준·탄탄한 사업 인프라 등 ‘경쟁력 있다’ 판단 “2021년 누적 매출 1000억 목표”... 내달 ‘오픈샵’ 개국

홈쇼핑 업체들이 하나둘 해외 사업을 접는 가운데 현대홈쇼핑이 호주 진출을 선언했다. 2000년대 초반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던 홈쇼핑 업체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외 사업을 정리하는 와중에 현대홈쇼핑이 기존 업체들이 도전하지 않던 호주에 도전장을 내밀고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대홈쇼핑은 다음달 1일 호주 TV홈쇼핑 채널 ‘오픈샵(Open Shop)’을 개국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2월 호주 TV홈쇼핑 시장 진출을 위해 자본금 4500만 호주달러(약 360억 원)를 투자해 현지 단독법인 ‘ASN(AUSTRALIAN SHOPPING NETWORK, 지분 100% 보유)’을 설립했다.

현대홈쇼핑은 2003년 초반 중국 광저우의 흥아홈쇼핑 지분 30%를 30억 원에 인수하며 중국시장에 진출했다가 사업 부진으로 3년 만에 철수했다. 이후 2016년 베

트남과 태국에 진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홈쇼핑이 호주에 진출하며 해외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는 호주의 높은 경제 수준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호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5만3800달러(2017년 세계은행 기준)로, 세계에서 9번째로 높다. 여기에 신용카드(86%)·인터넷(87%) 보급률이 90%에 이르는 등 TV홈쇼핑 사업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현대홈쇼핑은 안정적인 방송 송출을 위해 호주 1위 민영 지상파 사업자인 ‘세븐네트워크’와 송출 계약을 맺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호주는 그간 홈쇼핑 업체들이 진출했던 나라들과 다르다”라며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라이브 방송 운영 경험과 빠른 무료 배송 및 배송 속도, 무이자 할부 시스템 등 ‘한국식’ TV홈쇼핑 서비스 노하우로 차별화할 경우 호주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대홈쇼핑은 2021년까지



현대홈쇼핑 호주 TV홈쇼핑 ‘오픈샵’ 소속 쇼호스트들이 사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현대백화점그룹

지 호주 TV홈쇼핑 오픈샵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홈쇼핑 업체의 해외 진출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올라간다. CJ오쇼핑의 경우 2004년 동방CJ를 시작으로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등 6개 나라에 진출해 있다. 그중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일본과 터키, 인도에도 진출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업을 철수했다.

롯데홈쇼핑은 2010년 중국 5개 지역과 베트남, 대만 등에 진출했다가 현재 베트남과 중국은 철수했고 대만만 예외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GS홈쇼핑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케이만제도, 키프로스, 러시아 등 7개국에 진출해 있는데 지난해 기준 키프로스를 제외하고 모두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태국, 베트남, 케이만제도,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3개 나라에서 적자를 이어갔다. NS홈쇼핑은 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TV

홈쇼핑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 2009년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적자로 2018년 7월 청산했다. 중국 역시 2011년 법인을 세웠다가 현재 활동도 중단한 상태다.

업계는 현대홈쇼핑의 호주 진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는 드물지만 호주는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호주는 경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이 해외 진출국 중 유일하게 성과를 낸 대만도 국민 소득이 높고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대만은 중산층이 두텁고, 소비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나라가 작아 배송에도 문제가 없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홈쇼핑 업계는 해외 진출에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회사와 협력 형태로 진출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가 많고, 방송사업인 만큼 해당 국가 규제도 많아 여러 변수가 있다”며 “여기에 현지인들의 소비성향, 현지 인프라 등 고려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은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이삭아삭 ‘씨 없는 수박’

이마트는 4일부터 10일까지 ‘씨 없는 수박’ 7kg 미만을 1만1500원, 8kg 미만을 1만3500원, 9kg 미만을 1만4500원에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정상이 대비 각 2000원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씨 없는 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식감이 아삭하고 과육이 단단하다.

사진제공 이마트

CJ제일제당 “이번엔 생선조림 HMR”

최근 간편식 트렌드에 맞춰 CJ제일제당이 수산물 HMR 사업 강화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외식 전문점 스타일의 수산물 조림 요리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비비고 생선조림’ 3종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제 품들을 앞세워 ‘1일 1생선 시대’를 열며 차세대 수산 HMR 시장 성장과 진화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비고 생선조림’은 비비고 고등어시래기조림, 비비고 코다리무조림, 비비고 콩치김치조림 3종으로, 전자레인지로 90초 조리하면 따뜻하게 완성되는 국내 최초 용기형 상온 생선조림 제품이다. 손질과 조리 번거롭고 어려운 생선조림 요리를 1인분 용량으로 트레이에 담아내 밥 반찬으로 손색없는 맛을 구현했고, 양념소스는 밥에 비벼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간편식 트렌드에 따라 수산 HMR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와 눈높이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이에 반해 수산물 가공식품 대표 품목인 수산캔은 낮은 품질과 저가 이미지에 머물러 있고, 시장은 1200억 원(참치캔, 연어캔 제외) 규모로 최근 몇 년간 정체 중이다. 현재 수산캔 시장(참치캔/연어캔 제외)은 콩치캔, 고등어캔 등 조림, 찌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요리재료형’ 1세대 수산캔과 안주나 반찬으로 바로 먹는 HMR형 수산캔으로 구분돼 있다.

1년여간의 연구개발 끝에 수산HMR 제품으로 CJ제일제당이 첫선을 보인 제품은 가정과 수산 외식 전문점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고등어, 콩치, 코다리를 활용한

용기형 상온 요리 ‘비비고 생선조림’ 비린내 제어 기술로 깔끔한 맛 구현



최근 간편식 트렌드에 맞춰 CJ제일제당이 수산물 HMR 사업 강화에 나선다.

‘비비고 생선조림’은 비비고 고등어시래기조림, 비비고 코다리무조림, 비비고 콩치김치조림 3종으로, 전자레인지로 90초 조리하면 따뜻하게 완성되는 국내 최초 용기형 상온 생선조림 제품이다. 손질과 조리 번거롭고 어려운 생선조림 요리를 1인분 용량으로 트레이에 담아내 밥 반찬으로 손색없는 맛을 구현했고, 양념소스는 밥에 비벼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년여간의 연구개발 끝에 수산HMR 제품으로 CJ제일제당이 첫선을 보인 제품은 가정과 수산 외식 전문점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고등어, 콩치, 코다리를 활용한

조림 메뉴다.

탕, 찌개, 구이 등 여러 생선요리 중에서도 특히 조림요리는 생선 외에도 별도 채소나 양념이 필요한 데다가 난이도가 높은 요리이기 때문에 수산 간편식 메뉴로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출시한 비비고 고등어시래기조림(160g, 3980원)은 국내산 순살 고등어와 구수한 시래기에 매콤한 감칠맛의 양념이 깊이 배어 들어 있어 입맛을 돋우는 제품이다. 시래기는 수작업으로 꼼꼼히 선별하고 수차례 세척 과정을 거쳐 손질해 안전성에 보다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비비고 코다리무조림(175g, 3980원)은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코다리와 매콤 달콤한 조림 양념이 어우러져 전문점 메뉴 맛을 느낄 수 있다. 비비고 콩치김치조림(180g, 3980원)은 비린내를 잡는 담백한 콩치를 맛있게 잘 익은 김치와 함께 즐겨 낸 제품으로, 시원하고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특징이다.

이 제품들은 모두 생선요리 맛의 핵심인 비린내 제어를 위해 CJ제일제당이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확보한 차별화된 비린내 제어 기술이 적용됐다. 깨끗이 세척한 생선을 각종 채소로 만든 특제 마리네이드로 장시간 숙성하고, 다양한 자연원료들을 활용해 조리 중 발생하는 비린내를 잡아 깔끔한 맛 품질을 구현했다.

또 각각의 생선에 어울리는 채소와 생선요리에 특화된 가정식 볶음다대기를 더해 풍미를 한층 끌어올렸고, 소비자가 우려하는 첨가물을 뺀 3무(無)첨가로 더욱 안심하며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커피사업 흠 잡힐라”... 편의점 친환경 바람

BGF,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사 인수 등 정부 정책 발맞춰

유통·소비재 업계에 불어닥친 친환경 이슈와 다소 거리가 있던 편의점 업계가 친환경 행보에 나서고 있다.

BGF는 지난달 설립한 자회사 BGF 에코바이오를 통해 친환경 플라스틱 전문 제조사인 KBF(주)를 인수했다고 3일 밝혔다. BGF는 편의점 CU(씨유)의 모회사다. KBF(주)는 국내 유일의 생분해성 발포 플라스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플라스틱의 재활용·수거 등의 별도 과정 없이 매립만으로도 6개월 이내 완전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관련 핵심 기술력(관련 특허 7종)을 보유하고 있다.

BGF는 이번 인수로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관련 핵심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를 보유해 편의점 사업과 신선식품 배송 사업에 힘을 싣고, 해외 진출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백색오염(white pollution)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폐해가 심화되면서 전



GS25 ‘카페25’ 친환경컵. 사진제공 GS25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친환경 규제 움직임을 강화하자 유통업계의 보폭은 더욱 빨라졌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들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했고, 대형마트는 신선식품 속비닐과 비닐봉지 줄이기를 앞다퉈 실시했다.

편의점 업계가 친환경 행보에 나선 것은 원두 커피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커피전문점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를 정도로 원두커피 사업이 커지고 있는 편의점 업계로서는 자칫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과다 사용의 주범으로 인식돼 원두커피 사업에 제동을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CU의 즉석원두커피 매출 신장률은 2017년 33.7%에서 지난해 42.9%, 올해(1~4월)는 58.6%로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월부터 자사의 원두커피 ‘카페 갯(Cafe Get)’에 열대우림동맹 인증 원두를 사용하고, 종이 빨대 등 친환경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4월 자체 원두커피 브랜드인 ‘카페 25’에 사용되는 컵과 뚜껑, 컵홀더 등에 100% 친환경 소재를 도입했다. ‘세븐카페’를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역시 업계 최초로 열음컵을 무지 형태로 바꿨고, 최근에는 종이빨대를 갖춰 각 점포에서 발주해서 사용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자율협약에 따라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전문점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모습이 원두커피 사업을 강화하려는 편의점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

‘檢수사·소송·상폐’ 줄줄이… 코오롱, ‘악몽’ 이제 시작

식약처, 결국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결정

검찰, 전방위 수사 가속… ‘성분 변경 은폐 고의성 여부’ 쟁점
10일 티슈진 상장 실질심사 ‘악영향’ 전망… 줄소송 우려도
美 임상3상 재개 희망 걸고 있지만 ‘바람 앞의 등불’ 신세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이온열 코오롱 전 회장의 네 번째 자식’이라는 영광의 수식어들이 결국 물거품처럼 흩어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론을 뒤집지 못했다. 이제 회사는 수천 명의 환자 안전관리와 각종 소송, 검찰 수사 등 산적한 과제를 떠안은 채 법정 다툼으로 구사일생의 기회를 모색해야 할 처지가 됐다.

3일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든 코오롱생명과학은 예상대로 허가 취소 행정처분 집행지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문제가 된 인보사 2액의 성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앞으로 1년간 인보사와 같은 성분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는 성분 변동의 과정에서 고의성을 부인하고, 개발에서 시판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에서 식약처 기준에 맞춰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한 만큼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인보사를 환자들에게 다시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식약처의 처분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미국 식품의약품(FDA)이 인보사의 임상 3상을 재개할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FDA는 인보사 주성분의 세포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5월 임상 3상을 중지할 것을 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에 통보했다.

FDA는 임상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구성성분 특성 분석과 향후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이 자료의 제출은 8월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FDA의 검토 기간 등을 고려하면 결과는 9월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는 식약처가 이미 품목허가 취소를 발표한 만큼 미국 임상 3상 재개는

연월	일	내용
3월	22일	코오롱생명과학, 식약처에 인보사 주성분 세포 변경 가능성 보고
	29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STR검사서 주성분이 신장세포 확인
	31일	식약처,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요청
4월	15일	- 식약처, 국내 제품 STR검사서 주성분이 신장세포 확인 -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명령
	28일	3일 코오롱티슈진, 미국 FDA 임상시험 중지 통지서 수령 20~24일 식약처,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 현지심사 28일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행사고발 결정
5월	5일	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 공식 사과
	15일	검찰, 이온열 전 코오롱 회장 출국금지
	18일	품목허가 취소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청문회
6월	19일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연기
	2일	검찰, 코오롱티슈진 임직원 소환 조사
7월	3일	- 식약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최종 결정 - 코오롱생명과학, 행정소송 의사 발표
	10일(예정)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국에서도 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 FDA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진행 외에도 코오롱의 앞날은 험악하다. 당장 10일로 예정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 대상 결정은 인보사 사태의 또 다른 변수로 될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애초에 인보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상장 절차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보사의 허가 취소 처분으로 인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사유에도 해당한다.

거래소는 애초 지난달 1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인보사의 최종 행정처분을 참고하기 위해 시간을 한 차례 미뤘다. 결국 식약처가 인보사의 퇴출을 결정한 만큼 시장에서는 코오롱티슈진도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5만9000여 명이 달하는 소액주주가 얽혀 있어 거래소가 사태의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은 이미 회사는 물론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코오롱에 날아온 소장은 이번만이 아니다.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이 일찌감

치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며, 투여 환자 수가 3700여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는 더욱 불어날 수 있다. 삼성화재보험과 KB손해보험 등 10개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형사 소송을 냈다. 해당 금액은 300억 원대에 이른다. 만일 코오롱티슈진이 상폐 절차에 들어가면 코오롱은 추가로 수천억 원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약속한 장기추적조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15년에 걸친 조사를 위해서는 8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코오롱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를 가속하고 있다. 지난달 초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을 압수수색했으며, 2일에는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출국금지 조치된 이온열 코오롱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건은 이 전 회장과 코오롱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것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밀어붙였는지의 진위 여부다.

만일 고의성이 확인되면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외에도 허위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상장해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가 적용될 수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보폭 넓히는 임상시험 중개 앱 ‘올리브씨’

2월 규제샌드박스 선정 후 임상시험 건수 급증
빅5 병원·대형 제약사 제휴 맺으며 영역 확장

2월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돼 주목을 받았던 스마트 임상시험 지원 플랫폼 올리브헬스케어는 국내 임상시험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3일 올리브헬스케어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선정 전 2년간 자사 앱 ‘올리브씨’를 통해 진행된 임상시험 건수가 40건이었는데 비해 올 상반기에만 75건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이는 임상시험 참여자가 원하는 임상시험 정보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참여자 중심 서비스라는 특징에 힘입은 것이다. 또한 관심 질환이나 거주 지역 등을 설정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지원 방법도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간단한 설문 을 마치면 된다. 더불어 참여자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콜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 덕분에 임상시험 조기마감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병일 올리브헬스케어 대표는 “의료 기기의 경우 평균 임상시험 모집기간이 1~3개월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148명을 단 10일 만에 모집하는 등 빠르게 마감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와 사용자 중심의 앱을 통해 임상시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모집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신약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환자 모집을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이로 인해 임상시험이 지연되거나, 희귀질환의 경우 기준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해 신약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동안 국내 임상시험은 대중교통수단이나 홈페이지, 신문 등을 이용한 광고나 의료진에 의해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환자 모집 진행이 가능해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미국 제약 연구 정보업체인 컷팅 엡티 인포메이션은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의 가장 큰 요인을 환자 모집으로 꼽았으며, 신약 임상 시험 중 80%는 환자 모집이 지연돼 하루당 13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 기간보다 2배가량 길어지는 가 하면 신약 임상 시험의 37%는 계획했던 환자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 환자의 70% 정도는 임상에 참여하고 싶어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임상 정보와 기회를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활용 방안이 꼽히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높았던 규제 장벽이 해소되며 온라인 임상시험 플랫폼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올리브헬스케어는 국내 빅5 병원과 대형 제약·바이오사, 화장품 제조사 등과 제휴를 맺으며 신약, 신제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임상을 확장 중이다.

또 올해 9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모바일 임상시험 콘퍼런스’에도 국내 기업 중 단독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용자 중심의 임상시험 앱에 국내 이용자들이 쉽고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병원·임상시험수탁기관(CRO)·제약업체 간의 정보를 연결해주는 정보 교환 플랫폼을 목표로 국내외에서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 치매 치료효과 첫 확인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인 휴미라(아달리무맙)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효과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확인됐다.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신경과 김옥준 교수팀(박지애·이선영 박사, 손치훈 석사)은 양측 해마에 아밀로이드베타를 주입해 기억력을 크게 감소시킨 치매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투여군과 아밀로이드베타와 휴미라 투여군, 정상 뇌를 가진 대조군으로 나눠 행동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효과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기억력을 측정하는 모리스 수중미로(Morris water maze)검사에서 휴미라 투여 후 기억력이 45.98%에서 63.63%로 호전되는 것을 확인했다.

휴미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로, 인체 내 염증을 촉발하는 분자 TNF- α 를 억제시켜 류머티즘 관절염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교수는 “TNA- α 가 증가하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물질로 꼽히는 아밀로이드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증가된다는 점에 착안해 TNA- α 를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인 휴미라를 치매 연구에 활용했다.”

김 교수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치매 치료뿐 아니라 파킨슨, 뇌손상 등 난치성 뇌질환에도 응용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에서 아밀로이드베타 40을 이용한 아달리무맙의 인지장애 호전과 신경보호 및 항염증 효과’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지 ‘사이토테라피(Cytotherapy)’에 게재됐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부광약품, 英명문대와 파킨슨병 신약 개발

던디·옥스포드대와 3년간 알파시누클레인 질병 치료법 연구

부광약품은 영국 던디대학의 신약개발 유닛(Drug Discovery Unit·DDU)과 파킨슨병 신약치료제 개발을 위해 수백만 파운드(수십억 원)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신경장애로 인구 1000명당 2명이 겪고 있는 질환이다. 전 세계 환자는 610만 명으로 추산된다.

파킨슨병이 발병하는 주요 생물학적 기

전은 신경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알파시누클레인(α -synuclein) 단백질이 잘못 접히고 뇌에서 축적되는 것이다.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USP8 효소가 알파시누클레인의 자연분해를 막는다. DDU는 옥스포드 대학의 조지 토퍼리스 박사와의 공동연구에서 USP8 효소를 차단해 뇌에서 알파시누클레인 수치를 감소시키는 신약 후보물질군을 확인했다.

부광약품과 던디대학, 옥스포드대학은

신약 후보물질군을 임상 개발로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3년간의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이다.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알파시누클레인 관련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법도 함께 개발하며, 부광약품은 신약 물질에 대한 전 세계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획득하는 독점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번 계약은 DDU가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및 다케다와 체결했던 신약개발 파트너십 계약과 동일한 형태이다.

영국의 파킨슨병 관련 기관인 파킨슨즈 유케이의 연구책임자인 베키 포트 박사는 “알파시누클레인을 타깃으로 삼는 치료법을 찾으려면 현재는 치료할 수 없다고 여겨지

는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던디 대학교의 연구자들과 옥스포드 대학이 부광약품과 함께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DDU의 책임자인 폴야트 교수는 “신경 질환에 대한 약물 개발은 특히 도전적이며 학계와 산업이 함께 작업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 프로젝트를 옥스포드의 중개 연구 전문가들과 던디의 신약 개발 역량 갖춘 전문가들이 부광약품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치료제 개발에 한 단계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혜은 기자 euna@

국민연금, '탈많은 엔터株' 쇼핑 왜?

YG엔터 지분 1.02%P 확대
에스엠·제이콘텐트리도 늘려
"각종 악재에도 안정적 실적...
엔터주 재평가 이뤄질 것"

종목	지분 취득일	기존	현재	변동률
YG엔터테인먼트	5월 17일	5.66%	6.68%	1.02%P
SM	6월 7일	8.18%	9.24%	1.06%P
제이콘텐트리	4월 25일	6.99%	8.17%	1.18%P

성 접대와 마약 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엔터주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YG엔터테인먼트와 에스엠 보유 지분을 각각 1.02%포인트, 1.06%포인트 확대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보유한 YG엔터의 지분은 기존 5.66%에서 6.68%로, 에스엠은 8.18%에서 9.24%로 늘었다.

제이콘텐트리의 지분도 6.99%에서 8.17%로 1.18%포인트(4월 25일) 증가했다고 국민연금은 이날 공시했다.

각종 논란으로 엔터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엔터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각종 악재로 단기 투자심리는 위축됐지만 기

업 가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엔터주의 안정적인 실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2분기 엔터주들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엔터3사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SM 114억 원(전년 동기 대비 +14%) △YG 43억 원(+207.14%) △JYP 107억 원(+17.58%) 등이다.

지인해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강력한 엔터주 투자포인트인 고마진 음원 실적이 고성장을 이어갔다"며 "지난 1분기 신규 활동 및 신보가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음원 IP 만으로도 지속 수익을 창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K-POP이 글로벌 음악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한 것도 엔터주에 대

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실제 2007년 1억4000만 달러, 글로벌 15위에 불과했던 한국 음악시장은 2017년 기준 4억80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컸고, 순위도 전 세계에서 6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엔터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YG엔터의 경우 프랑스 명품 업체 루이비통모헤네이시(이하 루이비통)과의 투자금 반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성접대와 마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 한 관계자는 "엔터주의 특성상 실적 이외의 부분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선부터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보수적인 접근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메리츠증권 "큰손 모셔라" 고객자산가 유치 경쟁 가세

증권사 간 고객자산가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메리츠증권도 강남에 프리미엄 WM센터를 열며 자산관리(WM) 영업 강화에 나섰다.

메리츠증권은 3일 서울 강남과 이랜드센터 14층에 '강남프리미엄 WM센터'를 오픈했다. 메리츠증권이 고객자산가를 대상으로 센터를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프리미엄WM센터에 이끄는 수장은 김도훈 상무다. 삼성증권 SNI, 우리은행 투체어스, NH투자증권 프

면 자산관리수수료는 35억 원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년과 비교해도 기업금융 수수료액은 100억 원가량 증가했지만 자산관리 수수료는 8억 원 느는 데 그쳤다.

메리츠증권은 '강남프리미엄 WM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올해 WM 사업의 비중을 높여 투자금융 부문과 리테일 부문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고객 자산가와 법인 고객 유치에 집중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계획이다.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에 '프리미엄WM센터' 오픈 김도훈 상무 수장으로... 강남 지역 유명 PB들 합류 올 WM 비중 높여 투자금융-리테일 균형 성장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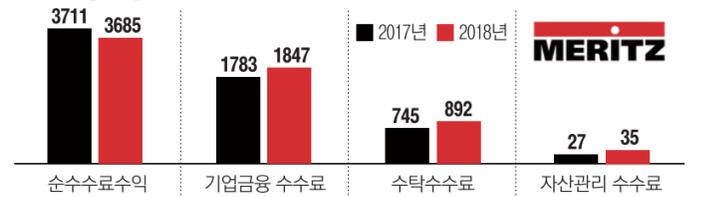
리미어블루 등 국내 은행·증권사 프라이빗뱅킹센터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또 강남지역의 유명 프라이빗뱅크(PB)들이 합류해 고객자산가들의 투자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메리츠증권의 WM부문은 실적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IB부문에 비해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메리츠증권의 순수수수료 3685억 원 가운데 기업금융 수수료(1847억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12%로 절반이 넘었다. 반

메리츠증권 이외에도 자본력을 키운 증권사들이 WM부문 수익 확대를 위해 고객자산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투자자산관리센터(Hub)를 중심으로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제도를 도입해 지역과 고객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삼성증권도 초부유층 전담 점포였던 SNI를 전국의 모든 지점으로 확대했으며, 대신증권도 고객 자산가를 위한 차별화된 P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 주치의의 양성을 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메리츠증권증권 순수수수료 내역 (단위: 억 원)



인보사 허가 취소에도... 코오롱생과 주가 5% 꺾춤

장중 8% 이상 급등... "불확실성 제거 효과 솟켜버 늘어"

인보사 허가 취소 여파에도 불구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상승 마감했다. 장중에는 8% 이상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은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 취소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1150원(5.11%) 오른 2만3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

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취소 일자 9일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는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1.85%), 부광약품(-1.14%), 종근당(-0.33%)이 내림세를 보였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삼천당 제약(-2.45%) 등이 하락 마감했다.

오세중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해당 이슈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투자

자들이 매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바이오 업종에서 나올 만한 이슈들은 다 나왔다"고 말했다.

진흥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앞선 이슈들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 발표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솟켜버(환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업종 주가와 인보사 취소 등 이슈들의 상관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짚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이다원 기자 leedw@

치과계의 적폐를 파헤치는
치과의사 K의 외로운 전쟁



본격 치과 담합 리얼 스릴러

임플란트 전쟁



[본문 내용 중...]

무엇보다 앞으로 협회에서 정한 수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벌어진 얼굴을 한 강마른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고 있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던 그는 늦게 들어온 광호를 잠깐 쳐다봤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시선을 내렸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환자들 보기 위해 가격이 싸다고 느끼 수 있을 만한 표현도 전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협회에서 정한 수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민원 건 취소해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는 이미 숙이고 있던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인사했다.

고광욱 지음

“하반기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 문 열어”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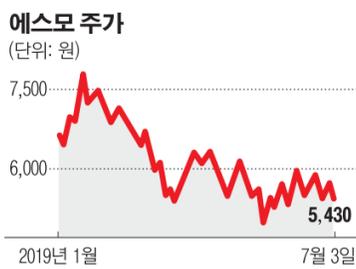
에스모

3분기 베트남 준공 예정
프랑스 자율주행차 업체
나브야에 263억 투자도

자동차부품 업체 에스모가 자율주행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자율주행차 업체 나브야에 2000만 유로(약 26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에스모는 베트남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다.

-나브야를 선택한 이유는?

“나브야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로 세계 최초로 미 교통부의 안전보장을 획득한 기업이다. 유럽 내에서도 가장 빠른 상용화와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했다. 나브야는 현재까지 100대 이상의 차



량을 상용화한 바 있다. 단기적으로는 완성품 판매를 통한 빠른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직접 조립하는 공정을 통해 수익을 늘릴 계획이다. 동북아시아 자율주행 차량 판매와 함께 오토택시나 셔틀버스를 통한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성공시키는 데 나브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 추가로 계획은?

“당사가 보유한 딥러닝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 향상과 서비스 플랫폼의 확대가 가능하다. 우선적 자율주행 시범 구간 외 권역별 주행 구간 확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국내외 완성차 제조 기업과의 협

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외 자율주행 선도기술 업체와의 투자 및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디에이테크놀로지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내의 주요 부품인 전기 배터리 기술 연계로 산업 파급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브야차량의 배터리 국산화를 통해 기술력과 품질을 검증하고, 유관 산업에 대한 안정적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신규공장 상황은?

“3분기 준공 예정이다. 베트남 공장은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팩 사업의 중심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나브야의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된 조립공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와 관련해 5G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만큼, 국내 통신사들과의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일본 및 중국의 자율주행 서비스와 관련해 해당 현지 파트너 회사와의 조인트벤처 또는 전략적 투자를 논의 중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안국약품, 성장호르몬결핍 치료제 임상 앞뒤

하반기 1상 진입... “한 번 투여해 20일까지 유지”

안국약품이 하반기 성장호르몬 결핍 치료제의 임상 1상을 진행한다.

회사 관계자는 3일 “하반기 성장호르몬 결핍치료제 ‘AG-B1512’ 임상이 예정됐다”며 “정확한 시기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국약품의 ‘AG-B1512’는 현재 개발 중인 치료 신약 가운데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전임상을 완료하고 올해 임상 진입을 앞둔 상황이다.

성장호르몬결핍증은 뇌하수체의 손상이나 발달 장애로 인해 성장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난치성 질환이다. 한독, 제넥신 등 신약 바이오 기업들이 앞다투어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AG-B1512’는 회사 안팎에서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다. 국책과제로 선정될 만큼 정부의 관심도 상당하다.

안국약품에 따르면 ‘AG-B1512’는 동물실험 결과에서 1세대 성장호르몬 제품 대비 반감기가 20~40배까지 향상됐다. 1세대 성장호르몬 제품 대비 반감기가 20~



40배까지 향상되고 성장호르몬에 의해 분비가 촉진되는 것을 확인하는 지표인 IGF-1(human insulin-like growth factor-1)의 수준이 단회 투여 후 20일까지 유지되는 시험 결과를 도출했다.

안국약품은 임상시험에서 월 1회 혹은 2회 투여만으로도 매일 투여하는 1세대 성장호르몬과 유사한 수준의 효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상 1상 결과에 따라 약동학적(PK), 약력학적(PD)으로 입증되면 기술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종민 기자 kim@

엠케이전자 “건축용 필름 양산 시작”

중문에 적용... 대형건설사 납품 전자파 차폐 제품 사업 확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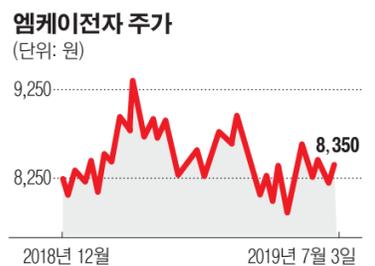
엠케이전자가 신사업인 테이프·필름(Tape & Film)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회사와 업계에 따르면 엠케이전자는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는 패턴 글라스용 기능성 필름을 개발해 5월 중 고객사 승인을 마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한 신제품은 아파트 중문, 현관 유리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요 대형건설사에 납품될 예정이다. 엠케이전자는 구체적인 회사 언급을 피했지만 점진적으로 매출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3일 “이번 신제품은 친환경 패턴 유리 타입(Type)으로 비산 방지 효과가 있는 안전 유리제품 구현을 가능케 한다”며 “외부 오염 방지 및 내마모성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 “UV 하드코팅을 통한 자외선 차단과 스크래치 방지 효과가 뛰어나다”며 “이번 건축용 필름 분야 진입으로 향후 건설 관계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주목할 점은 필름 사업부의 확대 여부다. 엠케이전자는 올해 초 필름 형태의 전자파 차폐(EMI) 제품 개발 성공을 시작으로 테이프와 필름 사업에 진입했고,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기존 반도체 분야와의 시너지도 가시권에 놓여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주요 반도체 패키지 전문회사들과 전자파 차폐 필름, 캐리어 타입(Carrier Tape) 등의 샘플 평가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울러 엠케이전자는 반도체 분야 외에도 가전,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종민 기자 kim@

**투자하는 누구나 하는 거야
그래야 하는 시대니까**

100세 시대,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
60세에 은퇴해도, 직장이 없어도
누구나 잘 살아야 하니까

이제 투자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NH투자증권이 함께 하겠습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신사업 제5-03(2019-06-03~2020-06-03)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7월 3일 18: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495,000	15,400 (3.2%▲)	모네로	108,800	5,300 (5.1%▲)
리플	484	10 (2.1%▲)	비트코인골드	31,350	1,870 (6.3%▲)
라이트코인	148,800	7,800 (5.5%▲)	이더리움 클래식	9,450	395 (4.4%▲)
대시	197,800	12,100 (6.5%▲)	퀀텀	6,090	490 (8.8%▲)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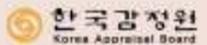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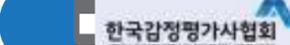
‘고무줄 공시價’ 논란에...집주인들 속 타는데

“우리가 공기관” 감정원·감평협 밥그릇싸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협회〉

평가사 전문성 앞세운 감평협 “자격 갖춰...공공기관화 가능”
감정원 “공적기관이 공사가 산정 영리 추구 기간에 맡길 수 없어”

감정원 vs 감정평가사협회 ‘협회 공공기관화’ 논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가격 산정 업무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해야 - 개개 평가사 판단에만 의존하면 주관·자의적 공시가 산정 가능 - 사적 의리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와 달리 공시 가격 평가는 공적 목적 활용 위해 공기관의 객관적인 가격 결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사는 전문가로서 이미 공적 업무 수행 중... 협회 공공기관화 필요 - 각종 세부 지침에 따라 전문가격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주관 개인 없음 - 감정원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독립적·객관적 공시가 산정 불가
---	---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평가사협회)의 골 깊은 감정(憾情) 다툼이 이제는 협회의 공공기관화 문제를 놓고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갈등의 골은 가격 공시 업무 관할권을 두고 양측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데서 촉발됐다.

감정원은 공시가격 산정은 국가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성을 갖춘 공적기관(감정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평가사협회는 평가사가 ‘영리만 추구한다’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협회의 공공기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감정원이 지난 달 28일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230가구에 대해 통째로 올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면서 현행 공시가 산정 방식에 대한 신뢰성 논란뿐 아니라 공

시가 업무 독점 논란까지 일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산정 주체는 감정원과 감정평가사로 양분돼 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감정원이 실거래가와 시세 조사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토지는 평가사들이 감정평가 방식을 통해 산정한다.

감정원과 감정평가사협회는 공시가 산정에 있어 어느 쪽 방식이 더 우월한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사들이 과거 도맡아 하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 업무를 가져간 데 이어 토지 공시지가 산정 업무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토지 공시가 산정을 계속하려는 평

가사 업체나 이를 이관해오려는 감정원이나 가격 산정을 더 객관적으로 잘 한다는 설득이 필요했던 셈이다.

이 같은 쟁점은 올해 공시가 산정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부각됐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최초 산정 시점(지난해 12월)과 정부 발표(1월 25일) 사이에 10억 원 이상 조정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감정원이 뒤죽박죽으로 공시가를 책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이런 논란을 빚고도 감정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은 공공성이 강한 제도로 민간 영역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으로

서 일관된 기준과 조직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업무수행 시스템을 갖춘 감정원과 달리, 평가사 업계는 개개 평가사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약한 측면이 있는 데다 주관성·자의성이 개입될 여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평가사협회는 평가사들의 이익을 위해 조성된 단체이다 보니 영리 추구에만 몰두할 것이란 인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협회도 공공성을 더 갖춘 형태로 거듭나고자 공공기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평가사들은 국가 공인 전문가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업무와 관련해 공무원으로 간주하며 공무원의 의무를 지키는 등 공적 형태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충분히 공공기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의 공공기관화는 감정원 입장에선 중박 기능에 대한 조정으로 외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익단체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주목! 이곳 브라이튼 여의도



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 사진제공 GS건설

교통 편리하고 편의시설 풍부
길 건너엔 현대백화점 조성...

오피스텔 열기 ‘후끈’

서울 여의도 옛 MBC 부지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복합단지(‘브라이튼 여의도’) 내 오피스텔이 분양을 앞두고 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3일 여의도에 위치한 분양홍보관에는 평일 오전인 데도 상담석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직 견본주택도 개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여의도 MBC부지복합개발PFV(신영·GS건설·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옛 MBC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 규모로 조성하는 대형 복합 단지다. 전용면적 84-136㎡짜리 아파트 454가구와 전용 29-59㎡짜리 오피스텔 849실, 오피스 및 상업시설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공급 물량은 오피스텔 849실로 7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632실 △44㎡ 90실 △59㎡ 127실로 구성된다.

브라이튼 여의도의 최대 장점은 교통 여건이 좋고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오피스 밀집지역에 조성된 상권과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쇼핑몰인 IFC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2020년에는 단지 바로 앞에 조성되는 ‘파크원’ 판매시설에 단일 시설 기준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인 현대백화점이 들어설 계획이다. 분양가는 평행대에 따라 4억-7억 원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수주전...현대건설 1兆 돌파

포스코 9937억 뒤이어
하반기 물밑 경쟁 치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올해 들어 건설사들은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수주전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압

도적인 수주고를 올렸고, 포스코건설도 1조 원에 가까운 수주액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재건축·재개발 수주액은 총 5조 4761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수주액인 5조 3082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상반기 수주액만 놓고 보면 현대건설이 유일하게 1조 원을 돌파하며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은 올 상반기에만 6곳의 정비사업을 따내며 총 1조 5553억 원의 수주고를 기록했다.

현대건설에 이어 포스코건설은 올 상반기 9937억 원의 수주고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3083억 원 규모의

서울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과 대전 삼성4구역 재개발(2857억 원) 사업 등 4건을 수주한 대림산업이 8850억 원의 수주액으로 3위에 올랐고, 부산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2748억 원) 등 3개 사업장을 접수한 GS건설은 7089억 원의 일감을 확보하며 4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대형 사업장들이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어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40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를 위하여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파괴적 혁신을 강요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가뜩이나 힘든 40대 중년들의 어깨를 더 움츠려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 2,800원 | 252쪽

고즈윈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B4 4층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경쟁사 IR 자료 도용” vs “통상적 표현 방식일 뿐” 야나두, ‘무죄’ 원심 뒤집힐까

이달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

경쟁 업체의 기업설명회(IR) 자료 내용을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나두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8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에 벌금 200만 원, 이모 부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유사한 IR 자료가 많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은 동중

업계 IR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야나두 측 변호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같은 내용의 자료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또 “스터디맥스가 앞서 있다야나두의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재는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작은 회사로 머물러 있었으면 문제 삼지도 않았을 것이며, 고소 배경에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야나두는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IR 자료를 제작하면서 온라인 외국어교육 업계 2, 3위를 다투는 경쟁기업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 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의 표현이 S사가 사용한 표현과 같거나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종 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 방식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야나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종암사거리·한남1 고가 밑, 주민 쉽터로

서울시,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방치된 공간이었던 성북구 종암사거리 고가하부 약 1343㎡ 규모의 부지가 생활체육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버스정류장과 인접해 벤치만 놓여있어 삭막했던 용산구 한남1 고가하부 약 2305㎡ 부지는 녹색 식물이 자라나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바뀐다.

서울시가 방지됐던 고가하부를 생활 SOC로 탈바꿈시키는 ‘고가하부공간 활용 사업’의 하나로 성북구·용산구 고가하부에 대한 설계공모 당선작을 3일 발표했다.

‘성북구 종암사거리 고가하부’ 최종 당선작은 박정환·송상현(심플렉스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이다.

‘성북구 종암사거리 고가하부’엔 빛이 투과할 수 있는 반투명 지붕과 목재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물이 설치된다. 내부엔 농구, 풋살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 공간, 요가·명상 등 정적인 운동을 하거나 주민들이 쉬어가는 휴게 공간 등이 들어선다.



‘용산구 한남1 고가하부’ 당선작. 사진제공 서울시

‘용산구 한남1 고가하부’는 공공건축가 천장환 씨의 설계안이 최종 선정됐다.

‘용산구 한남1 고가하부’에 꽃잎을 형상화한 구조물을 설치, 이를 타고 자라는 음지식물을 심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또 고가하부의 경사 지형을 여러 개 단으로 나눠 설치됐던 기존 벤치에선 주민들이 만남, 명상, 소공연, 야외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했다.

설계공모 심사에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고 입상작은 순위에 따른 상금이 지급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급식 대신 빵 먹는 아이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대체 급식으로 제공된 빵과 에너지바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넓은 집 수리 최대 1억까지 용자 지원

서울 미아동 햇빛마을 등 5곳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 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5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미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 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이 대상이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000만 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500만 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용자지원 사업은 집수리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용자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미아동 햇빛마을(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 △중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 △광희동(광희·장충) 성곽마을(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 △용답동(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장충동2가(골목길 재생사업 구역)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70가구 공급

강변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70가구 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변역 인근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의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

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강변역 역세권 청년

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이다.

공급 가구는 총 70가구(공공18, 민간52)로 단독형 46가구, 신혼부부형 24가구로 구성된다. 공사 착공은 올해 12월,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0년 9월에 실시해 2021년 3월 준공 및 입주할 계획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재미 공감 행복

BRAVO My Life

**정기구독 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짬짬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짬짬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짬짬 TV)

구독 문의 (02) 799-2680

“단 한 명의 불만도 경청... 소비자와 함께 화장품 만들죠”

W기획 인터뷰

‘롬앤’ 브랜드 탄생 주역 뷰티 크리에이터 ‘민새롬’

“당신의 보라색 입술을 구제해드립니다.”
유튜브에 접속한다. 얼굴에 로션조차 바르지 않은, 안경을 쓴 한 여성이 이같이 제안한다. 이 여성은 자신의 보라빛(?) 입술을 거침없이 공개한다. 본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함께 생기를 찾자고 말한다. 모공이 하나하나 다 보이도록 숨김없이 자신의 민낯을 공개하는데, 왠지 친근하다. 이 여성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면 왠지 내 얼굴의 단점이 보완될 것만 같다.

민새롬(29) 씨는 뷰티 크리에이터다. 2012년 ‘개코의 오픈스튜디오’ 블로그를 운영하며 온라인 소통을 시작했다. 어느덧 8년 차 인플루언서가 됐다. 뷰티 브랜드 ‘롬앤’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롬앤은 민새롬의 ‘롬’, 그리고의 ‘and’를 합친 이름이다. 대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미술학도였던 민 씨는 ‘심심해서’ 블로그를 시작했다가 ‘롬앤’의 얼굴이 됐다.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요. 아일랜드에 살기도 했는데, 거기에 살면서 유럽여행을 다녀거든요. 그 여행들을 추억용으로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다 원래 화장품을 좋아하기도 했기 때문에 ‘내가 산 화장품을 한번 올려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올리는 것보다 마침 새로 산 태블릿 PC도 활용할 겸 제품 ‘누끼’도 따서 올리니까 시각적 효과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도 했고요. 점점 이것도 올려볼까, 저것도 올려볼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웃음)”

처음엔 기록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블로그 속 말투는 ‘올렸음’, ‘써봤음’과 같은 반말이었다. 팬이 늘어나면서 말투도 바뀌고, 소통 영역도 확대됐다. 최근 구름다리를 건넌 강아지 ‘송이’와 민 씨와의 교감은 인기 블로그 포스팅 중 하나였다. 민 씨는 “강아지 보러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말했다.

구매 화장품 후기 올리며 블로거로 출발
거침없는 민낯 공개로 폭발적 반응 이끌어
대기업서 러브콜 왔지만 ‘롬앤’에 더 끌려
작년 브랜드대상 뷰티부문 최우수상 수상

민 씨의 애칭은 ‘개코’다. 롬앤 직원들은 그를 ‘새롬님’ 혹은 ‘개코님’이라고 부른다. 민 씨는 자신은 롬앤의 대표가 아닌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했다. 롬앤의 경영, 마케팅 등 다른 영역은 전문인력이 책임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민 씨의 롬앤은 ‘2018년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뷰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이패밀리SC에서 민 씨를 만나 대기업 러브콜부터 롬앤의 성장과 슬럼프 과정까지 모두 들었다.

- 지금은 민낯 공개가 자연스럽지만, 예전에는 용기가 필요한 영역이었다. 특히 화장 전후를 세세하게 공개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거리낌이 없었다. 평소에도 민낯으로 잘 다니고, 화장하는 날이 거의 없다. 직원들도 제가 화장하는 날엔 ‘무슨 일 있어요?’라고 물을 정도니까. (웃음) 민낯 공개가 흔하지 않았던 때였는데, 제 민낯과 극대화된 화장 후의 얼굴을 보여주니 반응이 더 오더라. 제 화장 전과 후가 다른 게 이득으로 다가온다는 걸 알게 된 거다. 콘텐츠로 공개를 한 번 했더니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

- ‘롬앤’이라는 신생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대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안들을 거부하고 브랜드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다.

“저는 ‘롬앤’ 대표가 아니다. 아이패밀리SC에서 웨딩사업을 하다 보니 청담동 메이크업샵 원장들이랑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직원 한 명이 나를 추천했다고 한다. 2015년 지금의 회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당시 저 역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던 때였다. 정말 많



시크로 대구점 오픈 기념 뷰티클래스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아이패밀리SC



‘2018 커밋뷰티 페스티벌’ 롬앤 부스 관람객과 기념 촬영.



유튜브 콘텐츠 제작 현장.

은 러브콜이 들어올 때이기도 하다. 지금의 선택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거로 생각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던 중 아이패밀리SC에서 장문의 메일을 보내 온 거다. 어떤 회사고, 메이크업 제품을 만든 적은 없지만 함께 일하고 싶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 맨땅에 헤딩 같다.
“맞다. 당시 남자 본부장, 남자 부사장, 여자 팀장 세 명뿐이었다. 저 역시도 ‘내가 이들과 같이 화장품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힘을 합치면 될 거라는 강한 이끌림이 있었다. CJ에서는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해서 방송 출연도 하자고 했는데, 유튜브 채널은 혼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블로그도 혼자 키워오지 않았다. 그렇게 2015년부터 1년 정도 같이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 거다. 제가 합류하면서 회사에 신사업본부가 설립됐다. 본부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화장품을 만들면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

- 롬앤의 첫 상품이 출시되고 반응이 어땠나.
“처음에는 정말 확신했다. 소위 ‘오픈빨’이었다. 개코가 화장품을 냈다고 하니 관심이 얻었다. ‘우리 진짜 잘됐다, 대박났다’ 했다. 그런데 3개월 가니까 ‘개코빨’도 떨어지더라. 저희의 첫 정력은 ‘백화점 화장품보다는 싸지만 로드숍보다 좀 비싼 제품을 만들어 보자’였다. 정말 제품만 열심히 만들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제품만 잘 만드는 게 좋은 건 아니었다. 제품을 잘 만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다. 이 제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경험해보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했다. 신제품이 한 번 나오고 새로운 이슈가 없으니 쪽쪽 떨어졌다. 2016년 9월에 론칭했는데, 이듬해 4월에 재브랜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 한동안 활동도 줄었던 것 같다.
“롬앤에 집중했다. 유튜브도 2016년에 만들었는데, 거의 손을 뗐다. 페이스북용 롬앤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전력을 쏟았다. 당시 직원도 없어서, 제가 직접 페이스



랄라블라 매장 내 롬앤 매대.

북 콘텐츠 만들고 CS직원인 척 댓글 달고 그랬다.”
- 전략을 어떻게 바꿨나.
“재도약을 위해 브랜딩을 다시 하면서 패키지, 로고, 모델을 싹바꿨다. 제품 가격도 완전히 낮췄다. 타깃을 바꾼 거다. 그동안 타깃은 개코와 함께 성장한, 개코와 비슷한 또래들이었다.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을 염두에 뒀다. 그런데 그들은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사지, 인플루언서가 론칭한 걸 잘 사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이들을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가격도 낮추고, 파운데이션보다 쿠션, 립스틱보다 틴트로 옮겨갔다.”

- 브랜딩을 다시 해도, 대박이 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이대로 배가 가라앉으면,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것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회사 차원에서도 개코를 영입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직원도 새로 뽑았는데 망하면 안 되지 않나. 저도 미안하고, 회사도 저한테 미안한 상황이 되는 거다. 정말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다.”

- 브랜딩을 다시 한 이후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우리 입으로만 ‘우리 것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입에서 ‘롬앤 좋다’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콘텐츠’를 구상했다. 콘텐츠와 프로덕트의 합성어다. 제품을 하나 낼 때도 제품 하나

첫 상품 출시 7개월 후 재브랜드 위기 직면
가격 낮추고 타깃층 바꾸며 재도약 발판
‘빨간머리 앤’ 에디션 하루 매출 1억 돌파
상품 개발 과정 공개 신뢰 쌓이며 품질로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콘텐츠로 만들었다. 페이스 북용 콘텐츠도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는 지양했다. 롬앤답게 가고 싶었다.”

- 페이스 북 콘텐츠가 롬앤을 다시 살린 건가.
“정말 꾸준히 만들었다. 콘텐츠 하나가 터지자 다른 상품으로 연결돼서 상품 품질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자신감도 생겼다. ‘어썸’ 제품은 ‘퍼플립 구제템’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 제품으로 베이스를 만들면 거무죽죽한 입술을 살릴 수 있다고 마케팅을 했다. (웃음) ‘어썸’이 품질되자 주변 제품들도 하나씩 품질되기 시작했다. 고객이 제품을 200%, 500%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한 결과다.”

- 지금은 안정기인가 도약기인가.
“분위기가 정말 좋다. 지금이 가장 높은 순간이다. 처음 ‘오픈빨’을 요즘 시기에 넘어섰다. 아무리 잘 때도 오픈빨을 넘어서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2~3배 넘겼다. 최근 출시한 ‘빨간머리 앤’ 에디션은 온라인에서만 하루 매출액만 1억 원을 넘겼다.”

- 인플루언서의 화장품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들도 끌어안을 수 있는 롬앤만의 계획이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소비자와 밀착해서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갈 생각이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롬앤개발기록’을 통해 개발 과정부터 모두 공개하고 있다. 화장품은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출시 전에는 많은 분들을 모셔서 같이 써보고 컬러도 개발한다. 답은 소비자에게 있다. 99명이 좋다고 해도 불만을 표시하는 1명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소희 기자 ksh@



소중한 당신,
**공신처럼
 지켜줄게요**

한화생명 스페셜통합종신보험 무배당 [저해지환급형]

- ☑ **상황에 따라 자금활용이 자유로운가?** **중도인출, 연금지급을 위한 다양한 옵션!**
- ☑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합리적인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저해지환급형이니까!**

저해지환급형이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중도인출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연금선지급서비스 신청은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

상담문의 080-365-6363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9-01345호(2019.04.09) 준법감사인 확인필 CS19-05-30

 **한화생명**

ECB 총재·EU 집행위원장 모두... 우먼파워 유럽

“금융계 록스타” “위기의 파이터”
BBC 등 외신들은 2일(현지시간) 유럽 연합(EU)이 사상 처음으로 핵심 보직에 지명한 여성 수장들을 이렇게 불렀다.

EU 정상회의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임시 정상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ECB) 차기 총재로 크리스틴 라가르드(왼쪽 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EU 행정부 최고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오른쪽) 독일 국방장관을 각각 지명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 외에 EU 정상들은 도날트 투스크 현 EU 정상회의의 상임의장 후임으로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를,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에는 호세프 보렐 전 스페인 외교장관을 각각 내정했다.

EU 정상들은 EU 핵심 보직 선출을 놓고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마라톤 협상을 이어왔다. 여기서 ECB 총재 후보를 놓고 독일과 프랑스 간 신경전이 있었다. 독일 쪽에서는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총재를 밀었는데, 그는 마리오 드라기 현 총재의 완화 노선을 수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라가르드·폰데어라이엔 각각 지명...사상 첫 여성 양대수장

IMF 총재서 자리 옮기는 라가르드, 가는 곳마다 ‘여성 최초’ 중도우파 폰데어라이엔 ‘포스트 메르켈’...52년 만에 獨출신



이에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여성 후보들을 밀면서 프랑스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 라가르드의 정책 방향은 불확실하지만 IMF 총재로서 적극적인 금융 완화를 지지해온 만큼 금융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



크롱은 라가르드에 대해 “ECB 경력이 부족하지만 프랑스 재무장관과 IMF 수장으로서 유럽 재정위기에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라가르드는 성명에서 “유럽중앙은행 총재로 지명돼 영광”이라며 “IMF 이사회와

논의 끝에 ECB 총재 내정 기간 IMF 총재 역할을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가르드는 그동안 가는 곳마다 ‘최초의 여성’이란 타이틀을 달고 다녔다. 고교 시절 싱크로나이즈드 선수로 활약한 라가르드는 파리10대학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고, 글로벌 로펌 매킨지에서 최초의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다. 노동문제와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5년 프랑스 재무장관을 지냈고, 2011년 성추문으로 물러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의 뒤를 이어 IMF 총재로 선출됐다. 당시에도 라가르드는 유리천장을 깨고 IMF 사상 첫 여성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도 주목을 받지만,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국가 간 조율을 통해 위기를 뛰어넘었다는 협상가로도 평가를 받는다.

한편 차기 EU 집행위원장에 내정된 폰데어라이엔은 중도우파 정치인으로 ‘포스트 메르켈’로 거론되던 인물이다. 독일 출신의 EU 집행위원장은 1967년 발터 할슈타인 유럽경제공동체(EEC) 초대 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9개월 공석’ 가스공사 사장에 채희봉 前 청와대 비서관 선임

9개월째 공석이었던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선임됐다.



가스공사는 3일 대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채 전 비서관을 제17대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가스공사 사장 최종 후보에 채 전 비서관과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직무대리가 오르면서 ‘산업부 관료 출신’과 ‘내부인사’ 간 대결 구도에 이목이 쏠렸었다.

채 선임 사장은 서울 출신으로 용산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거쳐 1988년에 행정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보직을 지내 에너지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장세주(왼쪽) 동국제강 회장이 브라질 연방 상원의사당에서 조제 에미리우 지 모랑이스 훈장을 수훈하고 있다. 사진제공 동국제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브라질서 ‘산업발전 공헌’ 훈장받아

현지 ‘CSP 제철소’ 주주사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브라질 정부로부터 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3일 동국제강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장세주 회장이 브라질리아 연방 상원의사당에서 ‘조제 에미리우 지 모랑이스 훈장’을 수훈했다. 이 훈장은 브라질 상원의원회에서 매년 브라질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브라질 상원의원회는 “장 회장이 브라질

북동부 지역 CSP 제철소 주주사인 동국제강 회장으로, 연 300만 톤급 슬래브 생산을 위해 CSP 프로젝트에 54억 달러 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북동부 지역 경제,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며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브라질 CSP 제철소는 동국제강이 30%, 브라질의 발레 50%, 포스코가 20%를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장 회장의 집념과 끈기가 빛어낸 산물이다. 장 회장은 2001년부터 브라질 고로 사업 진출을 지휘하며 브라질 정부 측과 민간 기업의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2005년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에 투자를 시작했으며 2007년부터 브라질 발레와 고로 사업 합작에 합의했다. 이에 2012년 CSP제철소가 착공, 2016년 6월 고로 화입과 함께 가동을 시작했다.

이후 가동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생산 293만 톤을 달성, 영업이익 1억6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 기간 제철소 건설 및 운영으로 약 3만 7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도 창출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재일 한국학교 이사장에 선임

OK저축은행은 3일 최윤(사진 왼쪽)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이 일본에 있는 한국학교 금강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에 OK배정장학재단은 5월 금강학교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 회장은 “일본 한국학교의 경쟁력 있는 교육은 재일 동포사회를 탄탄하게 만들고, 나아가 조국인 한국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인재 육성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금강학교가 일본사회를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한국 국제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강학교는 재일동포 1세가 한국 문화와 민족교육을 목적으로 1946년 설립한 세계 최초의 한국학교다. 1961년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인가받은 해외 한국학교이며 1985년 일본 정부에서도 금강학교를 정규학교로 승인한 바 있다. 이곳에는 현재 200여 명의 재일동포와 일본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일본에는 현재 6개 한국학교가 있으며 한일 양국에서 정규학교로 인정받은 곳은 금강학교를 포함해 세 곳뿐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美 자동차업계 전설’ 리 아이아코카 별세

1980년대 ‘연봉 1달러’로 크라이슬러 회생 이끌어

미국 자동차 업계의 전설적인 최고경영자(CEO)인 리 아이아코카(사진) 크라이슬러(현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아이아코카 전 회장이 2일(현지시간) 파킨슨병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로스앤젤레스(LA) 벨에어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향년 94세.

평범한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 출신인 아

이아코카는 1946년 미국 포드자동차에 입사해 승진을 거듭한 끝에 1970년 12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포드 창업자의 손자인 헨리 포드 2세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1978년 회사를 떠났다. 그러자 그를 눈여겨보던 크라이슬러가 냉랭 영입, 아이아코카는 1979년 회장 겸 CEO로 화려하게 자동차 업계에 복귀했다.

아이아코카는 파산 일보 직전에 내몰렸던 크라이슬러를 회생시키며 세계적인 명



성을 얻게 됐다. 취임하자마자 유럽 자회사를 매각하고 고위 임원들을 해고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경영자로서 ‘연봉 1달러’를 처음으로 실천한 것도 아이아코카였다. 뼈를 깎는 비용 절감 의지를 강조하고자 자신이 먼저 연봉 1달러만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자 1980년 미국 정부의

15억 달러(약 1조7579억 원) 지급보증을 이끌어낸 극적인 부활 계기를 마련했다. 자동차 산업에서 그의 업적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WSJ는 강조했다.

그는 1992년 말 크라이슬러에서 은퇴했으나 3년 뒤 억만장자 커크 커코리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도왔다. 결국 1996년 M&A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아이아코카에게 5년의 합구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아이아코카는 1999년 전기자동차업체 EV글로벌모터를 설립하려고 시도하는 등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으나 최근 수년간은 자선활동과 집필에 집중했다.배준호 기자 baehj94@

인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역센터장 △호남권연구센터장 이길형 △서울SW-Soc융합R&BD센터장 나중찬 ◇본부장-단장 △지능정보연구본부장 민욱기 △초성능컴퓨팅연구본부장 김영수 △지능행반도체연구본부장 권영수 △지능로봇시스템연구본부장 최정단 △미래이동통신연구본부장 김일규 △네트워크연구본부장 김선미 △전파-위성연구본부장 변우진 △미디어 연구본부장 이현우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장 정일권 △기술정책연구본부장 이지형 △표준연구본부장 강신자 △정보보호연구본부장 김익균 △미래원천연구본부장 송기봉 △소재부품원천 연구본부장 송윤호 △실감소자원천연구본부장 이정익 △광무선원천연구본부장 백운순 △자율무인이동체연구본부장 안재영 △IDX+연구본부장 우영춘 △기상위성지상국개발본부장 안도섭 △스마트ICT융합연구본부장 박준희 △도시·교통ICT

연구본부장 이인환 △복지·의료ICT연구본부장 박수준 △에너지·환경ICT연구본부장 이일우 △국방·안전ICT연구본부장 이용태 △양자기술연구본부장 박성수 ◇부장-센터장 △기술상용화센터장 박범수 △R&D사업화부장 박호영 △경영전략부장 손민호 △기술기획부장 진승현 △사업전략부장 박세명 △품질혁신센터장 이성원 △운영관리부장 임택환 △인적자원부장 오진환 △재무관리부장 이성진 △정보화·보안센터장 권정국 ◇실장 △감사실장 정관영 △인공지능연구소 연구지원실장 최완욱 △통신미디어연구소 연구지원실장 이진호 △지능융합연구소 연구지원실장 김우현 △ICT장의연구소 연구지원실장 민문홍 △대경권연구센터 연구지원실장 서교웅 △호남권 연구센터 연구지원실장 임상근 △서울SW-Soc 융합R&BD센터 연구지원실장 남경우 △중소기업사업화본부 연구지원실장 박정식 △융합기술 상용화실장 조원석 △사업화전략실장 박용 △사업화협력실장 윤수진 △기술이전실장 서태형 △

경영기획실장 이인석 △윤리경영실장 성나연 △기술기획전략실장 이승환 △창의원천기술기획실장 김선자 △메가프로젝트기술기획실장 오정훈 △사업전략실장 이상민 △사업기획실장 이강주 △사업조정실장 어윤희 △지식공유협업플랫폼개발실장 김상현 △운영복지실장 신현웅 △안전보안실장 김장수 △인사관리실장 김기정 △인력개발실장 최익봉 △노사협력실장 박정수 △회계관리실장 최원우 △구매조달실장 최우석 △자산관리실장 장은익 △정보보안실장 김기현 △의전협력실장 함영택

◆IBK투자증권 [보임] ◇본부장 △IB사업부문장 최성권 △자산관리사업부문장 겸 자산관리본부장 유정섭 ◇본부장 △법인주식본부장 김기연 ◇센터장 △IBK WM센터 역삼 센터장 전정석 ◇부/실장 △PIB상품전략부장 박정용 ◇팀장 △IPO2팀장 김성욱 △전문사모운용1팀장 정덕찬 △정보전략팀장 양철수 [승진] ◇상무부 △부동산금융본부장 유규택 ◇이사 △채

권운용팀장 박기현 △프로젝트금융1팀장 조성준 △금융상품영업팀 김장문 ◇부장 △FICC영업팀장 최진욱 ◇차장 △IB금융팀 김경진 △중합금융1팀 김영선 △시너지추진실 민혜원 △중소기업본부장 문경준

◆한양증권 ◇부사장 신규 선임 △전략금융부장 전용기

◆EY한영 ◇파트너 승진 △강선구 △규규환 △권영대 △김남훈 △김민수 △박근영 △박수민 △배병현 △손동준 △손효진 △신용범 △안태준 △염재용 △유정호 △이석재 △이용권 △이우창 △이재원 △이정선 △이종선 △이찬영 △이창근 △이창현 △이창호 △정일권 △조배건 △최동욱 △황성연 △황인회 ◇여소시에이 트파트너 승진 △김두현 △김정연 △김스텔라 △김영훈 △복성근 △송재영 △윤태승 △윤유신 △이승철 △이정호 ◇실장 선임 △법무실장 안태준 ◇부문장 선임 △김용범 △맹한주 △이기수 △이광열

부음

▲이복필 씨 별세, 이재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영림·경숙·재은 씨 모친상 = 2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5일 오전 8시 30분, 051-636-4444
▲전병분 씨 별세, 최관식(금융감독원 경남지원 팀장) 씨 장모상 = 3일, 충남 천안의료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41-570-7044
▲김극수(한국무역협회 전무) 씨 별세, 김대운 씨 부친상 = 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2-3410-6919

자본시장 속으로



조두영 변호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위법한 관행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은 반드시 지적하고 적발, 제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오랜 기간 축적된 양정례를 무시한 과도한 제재는 갑질에 불과하고 금융감독원의 위상을 더욱 갉아먹는 결과가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시장 주체인 금융기업의 적정성, 투명성 보장을 위해 검사와 그에 따른 제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의 오래된 고유의 업무적 기능이다.

그런데 국내외 자본시장의 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금융시장이나 금융기업의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으므로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 프로세스도 그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데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금융업무 자체의 보수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검사, 제재 프로세스에 대한 금감원의 일관된 철학이나 원칙이 부재한 것이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된다.

이런 일관된 원칙이나 철학의 부재는 역대 금감원 임원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즉, 원장이나 부원장 등 새로 온 임원들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무언가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듯하다. 그런 의지는 검사 프로세스나 제재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매년 원장

이나 임원진이 바뀌 때마다 검사 프로세스나 제재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된 철학이나 원칙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물론 검사 업무는 과거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진화해왔지만, 수십 년간 해오던 검사 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원장이 바뀌 때마다 "검사업무를 엄격하게 하자, 컨설팅 방식으로 바꾸자, 정기 검사를 없애거나 축소하자"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도를 수시로 변경함에 따라 장단점이 뒤바뀌거나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반복되었다.

즉, 검사나 제재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변화로 금융시장이 더 건전해지고 금융기업이 더 투명해지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오히려 매년 프로세스 변화만을 외치면서 업무 관행은 달라지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제재로 인해 금감원의 신뢰도만 더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

엄격한 검사든, 컨설팅 검사든 원장이

바뀔 때마다 검사 프로세스가 바뀌니 일선 검사팀 직원들은 바뀐 절차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거나 금융회사들로서는 검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냉소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 안 좋은 것은 검사를 통한 제재 양정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제재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면 그 자체도 잘못이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인 과거의 축적된 양정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강력히 제재하는 것만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착각하는 임원이라도 있다면 검사국 직원들은 임원 개인의 소신에 맞출 수밖에 없다. 또한 제재심의국 직원들은 축적된 양정례와 다른 과도한 제재로 골치를 앓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임원이 떠난 뒤에는 제재 수준은 과거로 또다시 회귀할 것이므로 일관성과는 더욱더 거리가 멀어진다.

금융기업으로서 과거 사례들과 달리 자신들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를 지켜본 다른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검사가 조자룡의 현 결

과 진배없다고 냉소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제재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면, 특히 과도한 제재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 이는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금융기업의 투명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융시장에 '어떤 관행'이 존재한다면 그 관행이 생긴 분명한 이유나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수년간 이를 제재하지 않았거나 약한 제재 수준을 유지해왔다면 합리적인 이유도 틀림없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갑툭튀(신조어로 '갑자기 툭 튀어나옴'의 줄임말) 임원 한 명이 "내가 해봐서 잘 아는데"라며 강한 제재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한다면 이는 위법행위와 제재의 균등성을 깨는 아만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위법한 관행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은 반드시 지적하고 적발, 제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오랜 기간 축적된 양정례를 무시한 과도한 제재는 갑질에 불과하고 금감원의 위상을 더욱 갉아먹는 결과가 될 것이다. 금감원이 조자룡은 아니지 않은가.

CEO 칼럼



김승찬 한국벤처경영원 대표

경영에는 사업 아이템, 영업과 마케팅, 관리 등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사업의 성공은 이러한 요소가 각각의 경쟁력과 균형을 갖출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업의 성공 요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다. 혹자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 가치, 편의성을 강조한다. 혹자는 트렌드와 타이밍, 시장의 규모로 보기도 한다. 브랜드 전략가인 줄리안 황은 △필수적인가 △편의성이 있는가 △독보적인가로 판단한다.

필자는 사업성공의 요소를 트렌드와 제도라고 본다. 제도는 사업의 성패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필자는 신사업 전개와 투자 판단에 있어 제도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한다. 어찌보면 법이라는 울타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점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모럴리티(Morality)와 모탈리티(Mortality)

필자는 도덕성이라고 생각한다. 칸트가 말한 "하늘엔 빛나는 별, 내 마음엔 도덕률"이 그것이다.

사업에서 도덕성은 기본이다. 높고 큰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려면 도덕과 윤리의 기초를 깊이 내려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영업방식 그리고 시장 규모가 커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비윤리적이라면 그 사업이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부도덕과 불법의 대명사는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엔론'이다. 이들의 회계 부정으로 수만 명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보았고 공범인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은 문을 닫았다. 한국 대기업의 불법과 부도덕의 사례는 신문지상의 단골 메뉴다.

최근 정태수 한보 회장은 2000억 원 이상의 국제 최고 체납자로 오명을 남기고 해외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아들 정한근은 21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삼바 사태, 코오롱 인보사 사태, 유명 엔터사 임원과 소속 연예인의 마약과 성접대 사건 등이 발생했

다. 사건이 발생하면서 회사 가치 수천억원이 증발했고 아무 잘못 없는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

중소 벤처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5년 전 타 회사의 상표와 아이덴티티를 도용하여 행사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표 도용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상장적격심사를 통과할지 의문이다.

모럴리티(Morality·도덕성)가 무너지면 모탈리티(Mortality·사망)가 온다.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기업인 세 명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윤리와 도덕에 기초한 기업철학과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즈오, 혼다의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가 그들이다.

그중 파나소닉은 101년 된 회사로 그룹 매출의 1% 이상을 사회공헌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80조 원, 세계 60위 규모이다. 후계가 아닌 임직원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마쓰시다의 기업은 사회의 공적 그릇이라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교세라를 세계 1위의 세라믹 기업으로 일구었다. 은퇴 후 만성 적자로 위기에 처한 일본항공의 사장으로 추천받았다. 연봉 1엔의 조건으로 수락하여 일본항공을 정상화시켰다. 저서 '왜 사업하는가'에서 그는 일본의 정신인 화(和)를 강조하며 기업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을 설교했다.

애덤 스미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빵공장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빵공장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든다면 사회적으로 더 나은 기업이다. 문제는 동기고 우선순위이다. 사업을 하는 이유가 혼자만 잘 살기 위한 것인지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이 균형 있게 함께 가야 한다.

혼다 창업 회장인 혼다 소이치로의 책 '좋아하는 일에 미쳐라'의 한 단락을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경영자의 필수 덕목이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훌륭한 기술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토머스 제퍼슨 명언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미국의 정치가·교육자·철학자. 독립선언문을 쓴 그는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어 재선되었다. 철학·자연과학·건축학·농학·언어학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몬테첼로의 성인'으로 불리는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743~1826.

☆ 고사성어 / 목불식정(目不識丁)

고무래는 멍석에 널어놓은 곡식을 넓고 고르게 펴는 기구로 고무래 정(丁)자와 흡사하다. 그 고무래를 보고도 정이라는 글자를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일자무식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무식한 장흥정이 부친이 쌓은 공적 덕에 절도사가 되자 방자한 행동은 더욱 심했다. "천하가 무사한데, 네놈들이 활과 포를 당기는 건 글자도 모르는 목불식정만도 못한 일이다[天下無事而爾輩挽石弓不如識一丁字]!"라며 사람들을 업신여겼다. 참다못한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를 잡아 가두자, 이 소식을 들은 황제가 그의 직책을 박탈하고 한 말. "그놈이야말로 목불식정이로고." 원전은 당서(唐書) 장홍정전(張弘靖傳).

☆ 시사상식 / 페네이션(Funation)

재미(Fun)와 기부(Donation)의 합성어. 즐기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를 뜻한다. 다소 부담스러운 기부활동에 쉽고 재미있는 방식을 얹어 나타난 새로운 기부 문화이다. 계단을 이용하면 10원씩 적립된 다든지, 매장 내 거울 앞에서 고객들이 미소를 지으면 기부금이 적립되는 방식 등이다.

☆ 고운 우리말 / 곰비임비 일이나 물건이 거듭 쌓이거나 일이 겹치는 모양을 뜻한다.

☆ 유머 / 학구파 여학생의 대답 버스에서 자리가 나자 앞에 있던 여학생을 밀치고 아줌마가 자리를 차지했다. 여학생이 뻔히 쳐다보자 "이기집애가 어디서 눈을 뚱그랗게 뜨고 쳐다봐?"라고 했다. 그 여학생의 대답. "아줌마는 네모나게 눈 뜨실 수 있어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김우람 중기IT부/hura@

코인 투자도 공부 필요하다

있다. 사람들은 블록체인의 가능성만큼이나, 얼마나 위험한지에는 둔감한 듯하다. 벤처기업의 성공 확률은 좋게 봐야 1%인데, 코인업계라고 다르지 않다.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더 낮다는 부정적 견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본인이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막연히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가끔 무슨 무슨 코인을 샀다는 사람에게 그 코인의 기능이나 장래성에 관해 물어봤을 때, 코인의 기능과 필요성, 전망이나 강점과 약점을 술술 풀어내는 이가 있다. 투자하는 코인에 대

해 공부나 자료 조사가 잘된 경우인데, 얘기를 듣자면 솔깃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투자한 투자자와는 다르다.

최근 주식으로 꾸준히 관망은 수익률을 냈다는 투자자의 소식을 듣게 됐다. 눈에 띄는 투자 원칙이 있는데, 기업에 대한 정보를 빠삭하게 알 수 있는 몇 종목에만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코인에 대해 스스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투자하는 이들과는 대조적이다.

남에게 전망을 물을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한 후 확신이 드는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투자금 손실은 스스로 감당할 몫이기 때문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staff information: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9-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철학자·칼럼니스트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보면서

홍콩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다. 홍콩은 약 150년간 영국 식민지로서 겪은 아픔도 지니고 있지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지배해왔다. 1997년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약속, 즉 예전의 제도를 50년간 보장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지속돼 왔다.

왜 홍콩 시민이 들고 일어났다

지난달 16일 홍콩에서 주최 측 추산 약 200만 홍콩 시민이 도심에 가로지르며 중국의 '폭압적인'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줄잡아 홍콩 시민 10명당 4명이 거리로 뛰쳐나온 셈이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분노와 시위 규모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결정적 원인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홍콩의 정치·사법·언론 등 민주적 시스템이 점차 허물어져 왔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에 추진된 범죄인 인도법 개정은 분노 폭발의 한 계기로 작용했을 뿐이라는 말이다. 덩샤오핑은 홍콩 반환 결정 때 '홍콩은 홍콩사람이다스런다'는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면서 일국양제 원칙을 천명했지만,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이 원칙은 급속히 외해됐다. 무엇보다도 시진핑 정권은 중국이 후진타오 주석 시절 홍콩에 약속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을 뒤엎어버렸다.



범죄인 인도법(일명 송환법) 완전 철폐 등을 요구하는 홍콩 시위대가 1일(현지시간) 입법회 건물을 점거, 의사당 내부에 모여 있다. 홍콩/AP연합뉴스

홍콩 시민들이 특히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국 공권력이 심지어 이 법이 없을 때도 홍콩 시민을 납치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암투나 지도층 비리를 다룬 금서들을 출판·판매해오던 홍콩 코츠웨이베이 서점의 주주와 직원 5명이 2015년에 잇따라 실종된 일이 있었다. 특히 실종자 중 1명이 홍콩에서 납치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홍콩이 무법적 중국 공권력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충격적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1명은 아직 행방이 '미확인' 상태이고 나머지 3명은 납치된 뒤 풀려났지만 중국에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에 관해 여태껏 굳게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 정부가 중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자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며 불만감과 분노가 홍콩 시민 절대다수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중국 당국으로서는 처벌하려는 홍콩인들을 예전처럼 납치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홍콩 시민들로서는 엄청난

난 사회 변화에 부닥치는 것이다.

'시황제' 꿈의 작은 돌부리

시위를 벌인 홍콩 시민들에게 중국의 범죄인 인도 허용 법안 개정이라는 시도가 매우 위협적으로 비쳤으리라는 건 충분히 짐작된다. 여태까지 일반 시민이 누려온 자유와 권리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홍콩은 외형상 '홍콩 차이나', 즉 중국의 일부로 불렸지만, 중국 본토와는 다른,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현재의 꿈으로 바뀔 수도 있는 판에 긴장, 분노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이번 시위는 시진핑 주석과 중국 당국에도 작지 않은 도전적 과제로 등장했을 것이다. '중국몽(中國夢)'과 '시황제(始皇帝)'의 야심찬 꿈이 의외의 돌부리에 채인 형국이기 때문이다.

중국몽은, 한마디로, 옛날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그 찬란한 옛 중화민족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소리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에 오르면서 처음 내세운 이념이다. 중국이 단지 'G2(세계 주요 2개국, 즉 중국과 미국을 말함)'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는 것, 이른

으로 세계 지도적 국가의 위상을 차지할 수는 없다. 그런 국가 위상에 걸맞은, 이른바 소프트파워가 구비돼야 한다. '상대편의 행동을 바꾸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흔히 정보 과학이나 문화, 예술 등을 말한다. 말하자면 이 소프트파워는 세계 중심 국가의 충분조건인 것이다.

소프트파워의 원천을 논할 때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정치 제도와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이 만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도외시할 수 없다. 제국(empire) 수준의 지도력이나 막강한 영향력은 결국 진정한 관용, 포용력에서 나온다는 데 역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전체주의, 획일적 통제, 폐쇄적 분위기, 이런 요소는 어떠한 나라가 세계 지도적 국가가 되는 커녕 열린사회, 선진 국가가 되는 길조차 원천 봉쇄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중국의 외교정책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용어로 '구동존이(求同存異)'가 있다. '서로 다른 점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공통된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본래 외교 용어로 나왔지만 다원주의적 사고방식이나 관용적 시각과 일맥상통해 보인다.

시진핑, 위대한 지도자인가

긴 안목에서 보면, 인류 역사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는 방향으로, 즉 민주화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온 게 사실이다. 물론, 민주화를 향한 그런 노정에 일시적 우회나 역주행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흐름이 제각각인 듯한 작은 물줄기들이 마침내 강과 바다로 흘러가듯이 인간의 역사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회와 국가, 체제를 향해 면면히 발전해왔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는, 일종의 자연법칙과 비슷한, 인류 역사의 법칙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진정 불세출의 정치 지도자라면 마치 법칙처럼 작용해온 이런 인류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중화 세계'에 포섭되는 여러 소수민족이나 홍콩 같은 특별 자치 구역에서 나오는 다양한 요구나 갈등도 '구동존이'적 자세로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니,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만일 그가 이런 세계사적 흐름에 순응, 병진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를 위대한 정치가로 평가해도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회를 보아 힘으로 밀어붙이기로 한다면 설령 그런 방식이 성공을 거둘지라도 그는 야심찬 권력자일 뿐이고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는 끼지 못한다고.

홍콩 시위의 불꽃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와 이웃해 있을 뿐더러 하루가 다르게 힘을 키우고 있는 나라, 중국과 그 최고 통치자의 크고 무거운 발걸음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시설

성장률 전망 또 하락, 비상대책 안보이다

정부가 결국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조정했다. 당초 목표였던 2.6~2.7%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을 제시했다.

수출과 투자, 민간소비 등 핵심지표들이 크게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작년 12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올해 5.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원래 3.1% 증가를 전망했으나 큰 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설비투자가 1% 증가에서 4% 감소로 뒷걸음질하고, 건설투자는 -2.8%로 기존 전망(-2.0%)보다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2.4%로 이전(2.7%)보다 낮아졌다.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마·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뚜렷한 데다,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져 수출과 투자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목표한 2.4~2.5% 성장마저도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2.3%에 그쳤다. 특히 노무라 1.8%까지 낮췄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2.0%로 내렸다. 모두 정부 전망치를 밑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6조7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효

과와 수출 및 투자활성화 정책 집행을 미리 반영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할 공산이 크다. 마·중 무역전쟁이 일단 휴전에 들어갔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일본의 통상보복이 가장 심각한 리스크로 떠올랐다. 우리 최대 수출제품인 반도체를 표적으로 삼은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외교적 갈등이 빨리 해소되지 않고,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우리 산업의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성장은 후퇴하고 경제의 하방압력만 쏟아지는 비상한 위기다. 정부는 기업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설자금 등에 1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한편, 경기도 화성 복합 테마파크와 충남 서산의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 서울 양재동 연구개발 캠퍼스 조성 등의 사업 인허가를 앞당겨 속도를 높이기도 했다. 당장 할 수 있고 필요성도 크다. 하지만 기존 정책을 확대하거나 반복하는 수준이다. 재정을 더 풀겠다는 것 말고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추락한 기업활력을 되살리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실효적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사리(事理)와 사리(絲理?)

날씨가 덥다 보니 냉면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냉면집에서 '여기 냉면 사리 하나 추가요'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국어사전은 사리를 '국수, 새끼, 실 따위를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문치'라고 풀이하고, "혹은 그런 문치를 세는 단위를 '사리'라고 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국어사전은 순우리말로 여겨 한자 표기를 안하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엔 한자어 '絲理'에서 나온 말인 것 같다. '실 사(絲)', '다스릴리(理)'라고 훈독하는 絲理는 '형클어지지 않고 잘 다스려진(가닥이 잘 잡혀있는) 실타래' 혹은 '실의 가닥이 잘 잡혀 있음'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기 때문이다.

같은 음의 다른 단어로써 '사리(事理)'라는 말이 있다. '일의 이치' 혹은 '일의 가닥'이라는 뜻이다. '璽'는 玉(구슬 옥)자와 里(마을 리) 자가 결합한 글자이다. 또는 '마을'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 역할과 함께 '안(裡-裏:the inside)'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玉은

중국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이 다. 그런데, 옥은 원석(原石) 안에 숨어 있는 고운 결을 잘 살려서 갈아내야만 귀한 옥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원석이 좋아도 결을 살리지 못하여 결이 이리저리 흐트러져 버리면 옥의 값어치는 뚝 떨어지고 만다. 이처럼 '옥의 결'이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한 '璽'가 점점 그 뜻이 확대되어 이치(理致:사물의 정당한 조리), 도리(道理: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사리(事理:일의 가닥) 등으로 쓰이게 되었다.

냉면 사리도 가닥이 형용어져 있으면 왠지 불결해 보이고 깨끗직한 느낌이 든다. 하물며 사리에 있어서야! 事理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일이 엉망으로 뒤엎어져 결국은 수습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우리 정국,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해 있다. 더 이상 영기치 않도록 국회의원님들께서는 事理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SAMSUNG

“냉장고 하나를 더해도 모던한 느낌 그대로
비스포크 앤 비스포크”



BESPOKE

4도어+김치플러스

Satin Navy/Glam White +
Cotta Charcoal/
Cotta White

가구를 맞추듯
가전을 맞추다 **BESPOKE**

